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金 善 浩

將次戰 樣相을 考慮한 特殊戰部隊
役割 및 教育訓練 體系에 관한 研究
(特殊戰教育團을 中心으로)

Research of Training system & Function of
the SWF considering the future war aspect
(SWTG as a main concern)

2006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經營大學院

經 營 學 科

國 防 經 營 專 攻

林 種 賢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金 善 浩

將次戰 樣相을 考慮한 特殊戰部隊
役割 및 教育訓練 體系에 관한 研究
(特殊戰教育團을 中心으로)

Research of Training system & Function of
the SWF considering the future war aspect
(SWTG as a main concern)

위 論文을 經營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經營大學院

經 營 學 科

國 防 經 營 專 攻

林 種 賢

林種賢의 經營學碩士學位論文을 認定함

2006年 12月 日

심사위원장 최응석 (인)

심사위원 김 선호 (인)

심사위원 조 윤기 (인)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 2 장 특수전 부대 교육훈련의 일반적 고찰	5
제 1 절 특수전의 일반적 개념	5
1. 특수전 개념	5
2. 비정규전 개념	7
제 2 절 현대전에서 특수전 및 특수전 부대 역할	9
1. 현대전에서 특수전	9
2. 현대전에서 특수전 부대	11
제 3 절 특수전 부대 교육훈련의 특징	12
제 3 장 장차전 양상과 특수전 부대 역할	14
제 1 절 미래의 전쟁양상	14
1. 정보전자전	14
2. 장거리 정밀교전	15
3. 다차원 동시통합전	15
4. 전쟁수준의 중첩	16
5. 비접적·비살상전	17
6. 비대칭전	18
제 2 절 장차전 양상에 따른 특수전 부대	19
1. 통일이전(북한위협 대비)	19
2. 통일이후(주변국 위협 대비)	21
제 3 절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특수전 부대	22
1. 북한의 핵실험 의미	22
2. 북한의 핵실험 규모 및 위력	23

3. 북한핵과 미사일의 전략·전술적 운용	24
4. 북한 핵에 대한 군사적인 대비방향	24
제 4 장 미국과 한국의 특수전 교육훈련 체계 분석	26
제 1 절 미국 특수전 교육훈련 체계	26
1. 미 특수전 부대 연혁	26
2. 미 특수전 교육훈련 체계	29
제 2 절 한국 특수전 교육훈련 체계	36
1. 연 혁	36
2. 지원자격	37
3. 특수전 교육훈련 체계	37
제 3 절 미국과 한국의 특수전 교육훈련 체계 비교	40
1. 임 무	40
2. 지원자격	41
3. 교육기간	41
4. 교육내용	44
제 5 장 장차전 양상을 고려한 특수전 부대 교육훈련 체계 발전 방향	47
제 1 절 부대구조 및 편성	47
제 2 절 교 리	49
제 3 절 무기체계	51
제 4 절 특수전 부대 교육훈련체계 발전방향	53
1. 특수전 부대 전문인력 획득	54
2. 현재 및 장차전에 대비한 지속적인 교리발전	55
3. 무기체계 발전에 따른 훈련강화	56
4. 저강도 분쟁에 대비한 교육훈련 실시	57
5. 전장에서 센서역할을 할 수 있는 훈련	58
6. 도시전투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훈련	59
7. 합동 및 연합특수훈련 발전	60
제 5 절 특수전교육단 교육훈련체계 발전방향	60
1. 특전훈과 기절함양	61
2. 생존훈련 강화	62

3. 과학화 훈련장 설치	65
4. 교육체계 개선	66
5. 우수자원 해외 특수교육 이수 활성화	68
6. 비정규전 수행능력 향상	69
제 6 장 결 론	71
참고 문헌	75
ABSTRACT	77

표 목 차

<표 4-1> 개인훈련 과정	31
<표 4-2> 장교 특수전 과정 훈련내용	33
<표 4-3> 특수전 부대 임무 비교	40
<표 4-4> 특수전 부대 지원자격	41
<표 4-5> 특수전 부대 교육기간 비교	42
<표 4-6> 특수전 교육내용 비교	45
<표 5-1> 특전기질 함양요소	61
<표 5-2> 생존훈련 모델	64
<표 5-3> 연간 교육소요 현황	65
<표 5-4> 장비소요 현황	66
<표 5-5> 양성과정 모델	67

그림 목 차

(그림 4-1) 미 특수작전 사령부 편성	27
(그림 4-2) 미 육군 특수작전 사령부	27
(그림 4-3) 미 특전여단별 책임지역	28
(그림 4-4) 미 특수전여단 편성	28
(그림 4-5) 미 특수전 요원 자격과정	30
(그림 4-6) 특수전교육단 교육체계	37
(그림 4-7) '06년 특수전 장교과정 교육 만족도	43
(그림 4-8) '06년 특수전 장교과정 교육기간 설문결과	43
(그림 4-9) '06년 부사관 고급과정 교육 만족도	44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특수전 부대는 인류의 전쟁이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정규작전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선도할 수 있는 정찰감시, 후방교란, 병참선 차단, 화력유도, 제2전선 형성 등 정규전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특수독립작전을 수행하였다.

지난 걸프전과 아프칸전, 그리고 이라크전은 특수부대의 작전의 중요성이 입증된 전쟁이었으며, 미국의 특수전 부대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수신기와 영상 수신장비를 이용하여 적 상황을 인지하는 가운데 작전을 실시하였다. 전쟁 개시전에 헬기 및 육로를 이용, 이라크와 쿠웨이트에 침투하여 전장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함으로써, 다국적군 지휘부가 정확한 정보판단 및 정확한 작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공중 폭격간에는 스커드 미사일 등 주요표적을 획득하여 항공화력을 정밀유도 하였으며 특히, 악기상시 인공위성 및 항공정찰 공백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¹⁾

또한 최근의 이라크전에서는 걸프전의 3배에 달하는 약 9천명의 특수전 요원이 투입됨으로써 특수전 부대의 역할이 갈수록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이들은 개전 이전에 침투하여 전략거점을 확보하고, 이라크 지도부 동향파악, 기갑 및 기계화 사단의 위치와 병력이동 현황 파악 등 지상군 위협요소를 사전 제거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생화

1) 육군대학, 「군사평론 제347호 특수전부대 운용」, 2000, pp.166~167

학 무기시설 탐색 및 봉쇄, 스커드 미사일 이동발사대 수색 등 국가 전략목표물의 위치를 파악하여 실시간 표적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중작전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걸프전 이후 아프칸전, 이라크전에 이르기까지 미 특수전 부대 운용중 특이할 만 한 것은 「특수전 요원 + 공군 정밀타격 능력」이 결합된 새로운 전쟁 수행양식을 선보였다.

장차 한반도에서 전쟁 양상은 군사과학 기술과 무기체계 발전, 정보화 및 과학화의 발전추세 가속화, 세계 및 동북아와 한반도의 정세 등을 고려해 볼 때, 입체전, 정보 및 전자전, 고속 기동전으로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전법은 시각적 측면에서 단기 속결전이, 공간적 측면에서는 전장지역의 확대를 통한 전 전장에서 전 제대가 전투를 수행하는 비선형전투와 적의 정밀 타격에 대비하여 분산된 부대로부터의 전투력 집중 운용방법으로 전환될 것이며, 전투력 운용면에서는 정밀타격전과 비살상전을 통한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 하려는 방향으로 발전됨에 따라, 특수전 부대는 전장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편성 및 운용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 특수전 부대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모든 부대가 동일 또는 유사형태의 부대구조와 편성을 유지함으로써 다양한 임무유형에 따른 정예화·전문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독자적인 침투자산의 제한으로 신속한 기동능력발휘가 제한되고 있으며 평시 육·해·공군 특수전 부대의 분산운용으로 전·평시 연계된 작전계획 발전 및 교육훈련이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차 통일 이후 전장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적 특수작전 및 다국적군 작전교리 및 훈련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 논문은 21세기 전장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 설계가 절실하다는 시대 요청을 염두에 두고 변화되는 대외적인 위협과 장차전 양상에 기초하여 한국 특수전부대의 교육훈련체계 발전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본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집중 다루고자 한다. 첫째, 안보정세 전망 및 장차전 양상과 군사과학기술 발전 추세 등을 고려 미래환경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장차전에서의 특수전 부대 운용개념을 설정하고 둘째, 다양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구조 및 신속 대응군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적합한 합동특수전 사령부를 제시하고 셋째, 특수전 부대 임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는 첨단무기체계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넷째, 전쟁 패러다임변화와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응책으로서 특수전 부대 교리 및 교육훈련체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한국 특수전 부대의 교육훈련체계 발전을 위해 먼저 고려해야 할 분석대상은 우리의 안보상 전략적 환경과 최근 발생한 전쟁 중 특수전 부대의 역할이다.

여기서 우선 안보위협 요소를 가려내고 위협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예측하고 최근 전쟁 간 얻어진 교훈과 자료를 바탕으로 특수전 부대 교육훈련체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국내외 각종 연구기관에서 발간한 참고서적과 학술지, 그리고 논문 및 세미나 발표내용 등을 문헌분석을 통한 기술적인 연구방

법을 사용하였다.

대상기간은 북한 및 미래의 잠재위협을 동시에 고려하고 상급부대 중·장기 기획문서 체계와 연계하고 연구주안은 장차 특수전 부대 운용 개념 정립에 두되 전투발전요소를 고려하여 부대구조 및 편성, 교리, 무기체계, 특수전 부대 및 특수전교육단 교육훈련체계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였다.

논문 구성은 총 6개의 장으로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을 기술함으로써 논문의 성격을 소개하고 제2장에서는 특수전의 일반적 개념과 현대전에서의 특수전과 특수전 부대의 역할 및 특수전 부대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제3장에서는 장차전 양상과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특수전 부대의 역할에 대하여 제시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미국 특수전 교육훈련체계를 한국 특수전 교육훈련체계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서 분석된 결과를 기초로 장차전 양상에 따른 특수전 부대 발전방향 및 특수전교육단 교육훈련체계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제6장 결론에서는 논문 연구결과를 종합·요약하여 특수전 부대 교육훈련체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제 2 장

특수전 부대 교육훈련의 일반적 고찰

제 1 절 특수전의 일반적 개념

1. 특수전 개념

가. 특수전의 정의

특수전은 196년대 초 공산 혁명전쟁에 대처하기 위하여 미국의 신축 대응 전략 개념에서 급격히 발전시켜온 전쟁개념이며, 이는 냉전이나 제한전, 전면전 상황하에서 국가목표의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히 훈련된 요원들에 의해 수행되는 비정규전, 대비정규전, 심리전을 망라한 정치, 군사 및 준군사 활동을 말한다.²⁾

또한 국방대학원 안보관련 용어집에선 “특수전은 냉전, 제한전, 전면전 상황하에서 자국의 국가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히 훈련된 요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비정규전과 대비정규전 및 심리전을 망라한 정치, 군사 및 준군사 활동이다”라고 정의되어 있다.³⁾

여기서 대비정규전 및 심리전은 군사활동 및 준군사 활동 등 모든 가용한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책임지역 내에서 적의 비정규전을 예방, 저지, 격멸, 소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현대 전장이 무기체계 및 기동수단의 발전에 따라 광역화되어 종심, 동시, 입체, 통합전투를 그 특징으로 함에 이를 수용하고 적의 비정규전에 대한 대비개념을 포함함으로써 비정규전의 공방적 운용의 양

2) 육군본부, 「육군 군사술어사전」, 1977, pp558~559

3) 국방대학원, 「안보관련용어집」, 1981, pp173~174

면성을 수용, 확대시킨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광의의 특수전은 비정규전, 대비정규전, 심리전을 포함하며 특수전의 한분야인 비정규전은 유격전, 도파 및 탈출, 전복활동을 포함하고, 협의의 특수전이란 비정규전 자체를 의미한다.

나. 특수전의 중요성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1949년에는 미·소 양대 세력이 핵개발에 중점을 두어 핵전쟁의 발발이 우려되는 시기였으며, 1950년-1966년에는 한국전과 같이 재래식 전쟁이 발발했던 시기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1956년 이후 현재까지는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서의 유격전, 쿠바 및 중남미에서의 전복활동,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유격전을 통한 전복활동 그리고 월남전 및 캄보디아 내란등 대부분의 비정규전이 의한 무력전 및 정치전의 시기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후 20년간의 통계를 볼 때, 총 69개 국가 중 3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정권이 전복되는 정변이 발생하였으며, 2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는 반란활동이 일어났고, 14개국 이상의 국가에서는 유격전이 발생했던 것이다.⁴⁾

즉,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핵무기는 가공할 파괴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제한되었으며 재래전은 그 본래의 전면성과 장기성으로 인하여 발생시 빈곤 및 혼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핵전이나 재래전에 의한 전면전을 회피하면서 자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특수전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이는 “인간이 전쟁을 지배한다.”는 본질적 원리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음을 실증하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속도가 요구되고 합동작전

4) 유준성, “현대전에 있어서의 특수전의 기여”, 1977, p.7.

에 의하여 입체적으로 수행되는 현대전의 성격이나, 한국의 지리적 여건, 북한의 배합전 등을 고려할 때에 특수전의 중요성이나 기여도는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2. 비정규전 개념

가. 비정규전의 정의

비정규전이라는 용어의 어원은 중국을 석권한 “모택동”의 유격전과 월남을 공산화한 “베트콩”의 게릴라전 등과 같이 소규모의 전쟁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완전한 전쟁형태로 변질되었다는 뜻과 게릴라전 빨치산전, 유격전을 통합한 의미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전”이라고 부른 데서 비롯된 것으로, 비정규전이 지니는 소규모 전쟁이라는 본래의 의미에는 변함이 없다.

비정규전이란 “적 지역이나 적 점령지역 내에서 현지 주민이나 외부로부터 침투한 정규군 요원이 주로 외부의 지원과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정치, 군사 및 준군사 활동으로서 유격전, 도피 및 탈출, 전복활동을 포함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⁵⁾

결국 이러한 비정규전은 게릴라전 개념에 수행주체로서 토착민의 정규군 요원을 포함하였으며, 수행 방법상 외부지원과 정치성을 띤 전복활동을 포함한 다소 정치활동 분야로의 확대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비정규전의 수행 목적

비정규전은 적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의 제반능력을 약화시켜, 정규전을 유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5) 합동참모본부, 「합동특수전」, 2002, p.5

첫째, 전략 및 전술 목표를 파괴하고, 둘째, 전방증원 차단 및 전투력을 고착시키며, 셋째, 사용가능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파괴하고, 넷째, 우군의 첩자나 포로를 도피 및 탈출 시키며, 다섯째, 적 정부의 전복활동을 실시하고, 여섯째, 기타 주어진 특수작전을 실시한다.

결국 비정규전은 국가목표와 정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 및 전술적 임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군사활동 뿐만 아니라 준군사 및 비군사 활동도 포함되며 부여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적의 정치, 군사, 경제, 사회, 심리등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제반 전쟁 수행능력을 최대한으로 약화시키도록 한다.

다.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차이점

정규전과 비정규전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양자간에는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다.

정규전은 전후방 개념이 구분되어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 전선에서의 싸움인데 반하여, 비정규전은 전후방 개념이 뚜렷하지 않고 주로 적 후방에서의 싸움이며, 정규전은 현대장비를 갖춘 피아 정규군 상호간의 공공연한 싸움이며, 비정규전은 침투한 비정규군에 의해 실시되는 은밀 또는 공공연한 무장투쟁인 것이다.

정규전이 단순히 군사 작전인데 비해서 비정규전은 주민들을 동원하기 위한 정치적 활동과 군사적 활동이 배합된 형태의 싸움으로서 오히려 비군사적인 요소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비정규전이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심리적 활동이 배합된 형태의 싸움이다.

제 2 절 현대전에서 특수전 및 특수전 부대 역할

1. 현대전에서 특수전⁶⁾

20세기 후반에 접어들어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고도 산업사회로의 전환은 전쟁양상의 측면에 있어서 군사기술의 첨단화, 군사규모의 대형화, 전쟁노력의 국민화, 군사작전의 치열화 및 총력전의 특징을 나타냄으로써 교전국들의 군사조직화는 날로 더욱 심화되고, 전쟁 중 작전은 전역화 및 치열화 되는 경향을 띠어 왔다.

그러나 현대 과학무기의 최첨단이라 할 수 있는 핵무기의 발전은 역설적으로 사회주의 대국과 자본주의 대국간의 무력에 의한 결전을 불가능하게 하였고, 강력한 최첨단 파괴무기의 위력은 소수민족, 또는 소수인민의 “해방전쟁”도 쉽게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즉, 현대의 핵무기는 유도탄 또는 다수의 강력한 병력은 이것을 직접 사용한다는 것보다 비정규전이나 심리전의 추진을 용이하게 하고 성과를 올리기 위한 심리적 위압과 공포용으로 또는 점령의 역할을 수행하는 현지 세력이나 이들을 지원하는 주민에게 안도감과 기대를 줄 수 있는 도구로 그 존재 의의를 고양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상호 전면전을 회피하는 범주내에서 국지전의 효율적인 수단으로써 특수전의 유용성은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현대전에서 특수전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전은 전략적 양상에 따른 고도화된 심리전을 구사함으로써, 적 전쟁지휘부의 혼란을 가져오게 하여 군대의 사기저하 등을 유발하여 적 지휘관의 결심을 흐리게 유도할 수 있고, 은밀히 적지에 침투

6) 김경두, “미래전 대비 특수부대 역할제고를 위한 발전방향”, 2004, pp7~9

하여 게릴라전을 전개함으로써 적국의 국민에게는 공포와 국가불신, 그리고 국민의 상호불신을 유발시키는 반면에 자국에 대하여는 군대에 대한 신뢰감 유발로 저항세력의 저지 및 국민간의 단합을 촉진시킬 수 있다.

둘째, 속전속결의 전쟁 및 전투수행에 대한 기여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늘날의 전쟁양상은 초전에 기선을 제압, 상대방이 자원을 동원하거나, 전쟁수행 및 지속능력을 보유하기 이전에 적을 파괴하고, 공세우위의 속전속결에 기초를 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이스라엘, 이집트간의 중동전쟁과 포클랜드 및 걸프전쟁을 통해 확실히 입증되었다.

셋째, 합동작전의 필요성 증대에 따른 특수전의 작전개념이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현대전에 있어서 공군 수송기 및 헬기에 의한 적 후방 지역에서의 수직포위와 반격 작전시 우군으로 하여금 유리한 국면을 조성토록 하여 정규군과의 합동작전을 통한 다양한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적의 게릴라전이나 테러에 대한 전쟁수단으로서 “게릴라는 게릴라로, 테러는 테러로 대항한다”는 개념하에서의 특수전의 역할이다. 오늘날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전쟁양상의 변화 속에서 정치·군사성을 병행할 수 있는 특수전은 보다 전문화와 특수화를 추구할 수 있는 하나의 신속한 대응능력을 갖춘 세력으로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분규의 당사국은 국가의 총역량을 집중하는 총력전의 양상을 띠고 있는 현대전에 있어서 총력전의 핵심은 항시 무력이 주가 될 것이며, 이와 같은 무력의 사용에 있어 어떠한 극단적이고, 특수한 전력구비는 현대전에 있어서 전승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현재 세계 각국은 정규전 수행이나 정규전을 수행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히 훈련된 요원으로 구성된 부대를 조직하여 해결하는 등 자국의 실정과 전쟁목적에 부합되도록 “특수전”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특수부대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2. 현대전에서 특수전 부대

최근 걸프전이나 아프카니스탄전, 이라크전에서 보았듯이 현대전은 가급적 인명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예화 된 특수전 부대 요원들이 적 후방 중심 깊게 침투하여 각종 작전을 수행하는 방법 등으로 전쟁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전 부대의 역할은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 전쟁이외의 군사작전 등에도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세계 각 국가는 정예화 된 특수전 부대를 보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들 특수전 부대는 각 국의 이익을 최전선에 서 지키고 있다. 특히 저강도 분쟁에서 특수전 부대의 효용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 특수전 부대는 대규모 정규군 파병이 필연적으로 초래할 외교적 마찰을 간단히 회피하며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특수전 부대의 효용은 강대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대규모 군비를 지출할 능력이 없는 약소국에겐 더 긴요한 존재다. 북한이 특수전 부대를 양성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 합참은 21세기 전략환경과 대응방향을 분석해 지난해 발표한 비전 2020에서 비대칭적 위협을 특히 강조했다. 잠재적 적국들이 미국의 강력한 현대식 무기에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적 방법으로 도전할 것으로 우려한 내용이다. 대표적인 비대칭적 위협 요인 중 하나가 특수전 부대다.

특수전 부대만이 특수전 부대를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한국 특수전 부대는 북한의 특수전 부대와 각종 저장도 분쟁 대응 뿐 아니라 강대국에 대한 위협 요소로도 큰 기능을 할 수 있다.⁷⁾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 및 장차전에서 특수전 부대의 역할을 고려해 볼 때 정규작전을 지원하는 역할, 정규작전 부대와 상호 지원 및 보완하는 역할, 독립적으로 작전을 실시하는 역할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제 3 절 특수전 부대 교육훈련의 특징

특수전 부대는 제한된 인원과 장비로 적지중심지역에서 소규모 단위로 분산되어 작전을 실시하기 때문에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 그리고 고도로 숙달된 전투기술이 특히 강조된다. 또한 적 후방지역에는 전방과는 달리 민간인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방의 언어 또는 문화, 습관에 익숙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변장술이나 은거기술, 현지 동조세력을 규합해서 간접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지휘통솔력 등도 구비할 수 있도록 정예화 되어야 한다.

통상 적 지역에서 소규모 단위로 작전을 수행하므로 전투원 개개인의 필승의 신념과 확고한 전투의지가 없이는 성공적으로 임무를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특수전 부대 각 요원은 작전의 목적 및 목표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명심하여 필승의 신념과 확고한 전

7) 배연해, □“강대국은 특수부대 양성중”,주간한국, 2001. 7.11

투의지를 견지하여야 한다.

특수전 부대 작전은 팀 단위 작전이 기본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대, 대대작전도 실시되기 때문에 각 제대 장으로부터 팀 요원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개인 기술훈련과 팀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특수전 요원들은 하루아침에 양성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반복 숙달과정을 통해 양성되기 때문에 정규작전 부대원과는 달리 강도 높은 교육 훈련이 필수적이다. 또한 전문 기술을 구비한 요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자격 교육훈련도 필히 겸해야 한다.

제 3 장

장차전 양상과 특수전 부대 역할

제 1 절 미래의 전쟁양상⁸⁾

1. 정보전자전

미래에는 자신은 최첨단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전장을 가시화하고, 전장정보를 네트워크형으로 공유하며, 효과적인 C4I체계를 구축하여 의사결정 사이클을 가속화하고, 전투수행 및 전쟁지휘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되, 상대방의 이러한 시스템을 파괴하는 정보전자전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경우는 향후 첨단 군사과학 기술의 한계와 국방투자 재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수준 높은 정보전자전 능력을 갖추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일본, 러시아의 경우 향후 매우 수준 높은 정보전자전 능력을 구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경우 군사과학 기술 수준과 투자재원 규모를 감안할 때, 북한에 비해서는 우세한 정보전자전 능력을 갖추 수 있겠지만, 주변 강대국의 능력을 추월하는 데에는 제한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일차적으로 대 북한 우위를 확실히 점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전자전 능력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되, 주변국에 비하여 열세한 부문은 한미 연합 정보전자전 능력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8)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미래전 양상연구」 서울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4,

2. 장거리 정밀교전

전장의 가시화 및 정보의 공유화, 무기체계의 사거리 증가 및 정확도 향상으로 인하여 정밀 교전이 보편화 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첨단 군사위성체계나 유·무인 정보수집 항공기, 정확한 유도 기술과 관련 무기체계 생산이나 구매, 목표타격 효과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정보처리체계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장거리 정밀교전은 인명피해가 확산되는 지상전을 회피하고, 상대국의 핵심 전쟁수행능력을 무력화하거나 위협함으로써 군사전략의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제한전을 수행한다든지, 무작위적인 공격이 야기할 민간인, 민간시설 피해에 따른 주민의 적대감 증폭을 방지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수행된다. 이러한 장거리 정밀교전 역시 최첨단 과학기술과 막대한 자원투자를 전제할 때 가능한 것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유도무기는 성능이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밀교전을 실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무기의 사용은 한반도 전쟁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또한 향후 정밀교전 능력을 위한 투자의 한계가 있을 경우 양적으로 목표를 공격하든지 위협하려 할 것이다.

3. 다차원 동시통합전

다차원 동시통합전이란 미래의 전쟁양상이 지상, 해상, 공중, 나아가 우주에서 함께 진행됨으로써 육·해·공군이 하나의 전쟁수행 시스템에 통합되어 전쟁을 수행함은 물론 이러한 전쟁이 전후방 구분 없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의미이다.

북한의 경우 이미 총참모장 작전지휘하의 통합군제 시스템을 갖고

있고, 기습선제 공격에 의한 속전속결과 전후방 동시 배합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 전쟁에서 다차원 동시통합전을 수행할 개연성이 매우 높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전쟁수행방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주변국의 경우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차원 동시통합전 개념을 추구하겠지만,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전면전 보다는 일차적으로 해군, 공군, 미사일을 동원한 지상목표 공격을 시도하고, 소규모의 특수전 부대를 침투시킬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전면전 상황하에서는 대규모 지상군 파견이나 상륙작전이 감행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전면전 상황 하에서는 대규모 지상군 파견이나 상륙작전이 감행될 가능성이 있으나, 대체로 지상전력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제한적인 전략적 공격을 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북한의 다차원 동시통합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준비하여야 하며, 특히 육, 해, 공군 공통의 통합전력과 통합지휘시스템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한편 주변국과 관련해서는 이들에 대하여 지상, 해상, 공중전에서의 승리를 모두 추구하기에는 국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군, 공군, 미사일을 통한 적정 수준의 억제력을 확보한 전제위에서 육군에 의한 국경선 방어, 상륙거부를 실시하고 나아가 지상전에서의 결전을 통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4. 전쟁수준의 중첩

전통적으로 전쟁은 전략·작전·전술의 세가지 수준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전쟁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모호해

지고 의미를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거의 전쟁에서는 전술적, 작전적, 전략적 전쟁행위가 순차적으로 전개되거나 서로 간에 부분적으로만 중첩되어 있었다. 그러나 미래전에서는 무기체계의 작전범위가 확대되고, 정밀타격이 가능케 되면서 전술적, 작전적, 전략적 전쟁행위를 거의 동시에 혹은 임의의 순서로 진행하는 병렬전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전쟁수준의 중첩은 단기 속결전을 추구하는 경우에 더욱 현저히 나타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전쟁지속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단기 속전속결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유사시 전술적, 작전적, 전략적 타격 목표에 대한 동시 공격을 감행하게 될 것이다. 주변국의 경우도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병렬전을 준비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 한국에 대한 군사행위가 전면적이 아닌 특정 분쟁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술적 차원에 머물거나, 혹은 핵심 전쟁지휘능력 마비를 위한 전략적 차원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5. 비접적·비살상전

미래전은 이른바 ‘스마트한 전쟁(smart war)’로서 가능하면 비접적 상황하에서 상대방의 무기나 장비, 전쟁지휘 시스템, 전쟁수행 지원능력을 정밀 파괴함으로써 인명살상을 회피하는 전쟁을 취한다는 것이다. 이는 막대한 인명피해가 피차간에 발생하게 될 경우 인간존중 차원에서 대내외 여론의 비판을 받게 되며, 전쟁 이후 관계회복을 어렵게 하는 후유증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접적, 비살상전은 타격목표를 정확히 선별할 수 있는 정보능력과 해당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고도의 정밀유도무기가 확보될 때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재래식 전력의 양적 우위와 비재래식 무기의 대량살상력을 적극 활용하는 집적·살상전을 통해 일시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 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제한전의 경우 국지적인 집적전투, 화생무기 사용 내지 화생무기 테러 감행, 특수부대 침투에 의한 요인암살, 주요시설 파괴 등의 게릴라전 등과 같은 전통적 의미의 ‘더러운 전쟁(dirty war)’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주변국의 경우 넓은 작전범위의 정밀 유도무기를 동원하여 비접적, 비살상전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에 대하여 전면적인 군사행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전쟁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지적인 분쟁에 있어서는 과거와 같은 집적·살상전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6. 비대칭전

비대칭전은 군사기술적, 경제여건상의 불리함으로 인해 적대국가의 우세한 전략시스템, 작전운용 개념, 조직편성의 원칙을 따라가게 될 경우 군사적 열세가 자명하게 되는 경우, 상이한 전략시스템, 작전운용 개념, 조직편성 원칙을 통하여 상대국가의 취약점을 공격함으로써 군사적 열세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은 핵실험 이전에는 한국 재래식 군사력의 질적 비약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적우위를 계속 유지하거나, 특수부대를 통한 후방교란 및 게릴라전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 발전에 대하여 비재래식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사용으로 대응하는 비대칭전을 구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9일 북한이 성공적으로 핵실험을 성공하면서 기존의 비대칭전의 개념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

었다.

한편 주변국의 경우는 한국에 비하여 질적, 양적으로 모두 우세한 선진군사력을 건설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오히려 한국이 이들에 대비한 비대칭전을 준비하여야 할 형편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해군력, 공군력, 미사일 능력의 경우 주변국을 따라 잡으려 할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전략적 억제력이 확보되면 다른차원의 비대칭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제 2 절 장차전 양상에 따른 특수전 부대

한반도는 세계에서 아직까지도 유일하게 냉전체제가 허물어지지 않은 지역이다.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은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그들은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전시키고 있으며, 특히 5대 위협요소중의 하나인 특수전 부대를 대규모로 보유하여 전술적, 작전적, 전략적 배합전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대치상황이 지속되는 한 현재의 특수작전 개념과 체계 속에서 효과적으로 적지중심작전 및 국지도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통일이 이룩된 후에는 주변국 및 세계를 상대로 한 군사, 외교, 정치적 위협에 운용할 수 있는 부대 운용개념이 연구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1. 통일이전(북한위협 대비)

가. 지상군 지원기능 부대(근접 및 종심작전지역)

지상군 지원기능 부대 중 근접작전 지역여단은 전시 지상군 작전에 기여하기 위해 야전군의 관심지역내에서 적의 예상 기동축선별로 주요 도로망을 정찰감시하고, 기동부대 위치파악 및 특수표적에 대한 첩보를

제공하며, 적 전투력을 분산 및 약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심작전지역 여단은 전시 중심작전지역 및 적 후방 중심지역이나 적의 점령지역에 침투하여 다양한 임무를 장기적으로 수행하며 전략적인 운용으로 적의 전쟁지속 능력을 약화시킨다.

나. 특수임무기능

특수임무기능 부대는 작전지역 및 운용 시기에 제한 없이 단기작전 위주로 운용되어, 평시에는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각종테러에 대응하고 적의 도발시 도발형태에 상응한 응정보복 작전을 실시하며,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특수임무로서 재난·재해 발생으로 고립된 인명구조 및 구호, 실종된 인원·장비의 수색 및 구조작전 등 비군사적 위협 대비작전을 수행한다. 전시에는 적 지역에 침투하여 적 전쟁지도부의 탈출차단 및 주요요인 구출과 납치 등을 통해 적의 전쟁지휘기능을 마비시킨다.

다. 특수타격기능

특수타격기능 부대는 주요 고가치 표적이 밀집되어 있는 평양권의 특성을 고려 타격작전 수행위주로 기능을 보강하고 훈련토록 한다. 표적의 특성을 고려 지역대 단위 이상 작전도 가능토록 박격포, 대전차 화기, 휴대용 대공미사일 등 화력을 보강하고, 지역대별 저격반을 육성하여 필요시 작전팀에 배속 운용한다.

라. 특수유격기능

특수유격기능 부대는 주요비행장 방호 등 후방지역 작전지원 및 대량살상무기(WMD)의 위치 식별, 장거리 미사일 기지 무력화, 태백 및 낭림산맥지역 적 은거거부 등 전략적, 작전적 표적에 운용하고, 또한

전쟁포로 위치식별 및 탈출지원과 교화소와 독재대상구역을 장악, 정치적, 심리적, 핵심시설을 타격하여 전쟁의 조기 종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용한다.

마. 항폭유도기능

항폭유도기능은 현재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의 체계로는 이라크와 아프칸에서 미 특수부대들이 이루었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선제 기습공격을 위해서는 표적에 대한 레이저 조사를 통해 직접 미사일을 표적에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과 특수부대원이 JTAC⁹⁾임무를 수행하여 최종공격 통제권한을 가지고 항공기를 표적에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2. 통일이후(주변국 위협 대비)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한국의 군사전략 개념의 수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북한이 없어져 주적 개념이 바뀌게 되므로 주변국 및 세계와의 관계정립이 불가피하고 ‘전장환경’도 바뀔 것이다.

휴전상태에서 전시만을 가정했던 통일 이전과는 달리 평시, 분쟁시,

9) 특수전 부대의 STT / SEAL / SOTAC를 단일화하여 JTAC이라고 하는 최종공격통제관으로 통합하였다. 이 JTAC은 미군에서는 국방부에서 자격인정을 하고 있다. 우리 특수전팀에서는 정작주특기 인원이 JTAC역할(Korean-SOTAC)을 수행하게 되며, 전시상황에서는 이를 토대로 미 공군기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근접항공지원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합동 최종공격 통제관(JTAC)이 소속되어 있는 특전중대는 필요한 장소 및 시간에 항공화력을 통하여 신속·정확한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정찰감시나 타격작전과 연계되어 계획을 세우거나 항공지원을 요청하면 보다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합동 최종공격 통제관이 없는 상황에서 특수전 부대가 항공화력 지원을 해야 할 경우에는 최종유도작전(TGO)을 실시한다. 최종유도작전이란 획득된 주요 고가치 및 핵심표적에 대해 항공전력을 요망되는 시간 및 장소에서 공격이 용이하도록 최종 안내 역할을 제공하는 작전이다. 즉, 특수전 부대와 공중공격 항공기와 상호 보완적 관계로 공중에서 위치파악이 어려운 이동하는 적의 고가치 표적을 특수전 부대가 수색을 통해 식별하여, 표적의 정확한 위치를 GPS, 레이저 지시기, 또는 표적위치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들을 활용하여 첩보제공을 한다. 또한 눈에 띄지 않거나 숨겨진 표적에 대한 공격시 정확한 전투피해평가를 제공한다. 이런 최종유도작전은 항공기를 통제하는 합동 최종공격 통제관의 최종공격통제와는 구별된다.

전시 상황하에서의 군사전략 목표달성을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통일 이후의 특수전 부대 운용은 주변국으로부터의 군사, 외교, 정치적 위협(국경분쟁, 경제 및 자원 분쟁 등)에 대하여 국가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투력을 결정적으로 운용해야 하므로 특수전 부대의 주요역할은 주변국에 대해 군사적전을 수행하는 것과 대테러, 마약, 요인구출 등 비군사적 위협대비 특수작전 활동에서의 임무수행에 대비하여 다양한 위협에 다목적인 신속대응 부대로서의 육·해·공군 부대로 통합된 합동 특수작전부대 구조를 갖추게 될 것이며 육군 특수작전사로서의 특전부대 유형별 부대 모습은 지역별 대응기능, 특수임무기능 등으로 구분 편성하여 기능별로 전문화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 3 절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특수전 부대 역할

1. 북한의 핵실험 의미¹⁰⁾

북한 외무성은 금년 2월 10일 공식성명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인할 경우에 예상되는 외교·군사적 파장 때문이다. 군사·외교적 측면에서는 핵보유국의 의미는 크다. 전략적 파괴력과 억제력을 갖춘 국가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고 그 만큼 대접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주변국에 엄청난 위협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 과학연구부문에서는 2006년 10월 9일 지하 핵실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했으며 과학적

10) 김선호, “북한의 핵실험과 한국의 대비책”, 성우회, 2006, pp.14~15

타산과 계산에 의해 진행된 이번 핵실험은 방사능 유출과 위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보도문은 “핵실험은 100% 우리 지혜와 기술에 의거하여 진행된 것으로서 강위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갈망해온 우리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와 기쁨을 안겨준 역사적 사변이다”며 북한지도부가 핵실험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은 우리 모두에게 현실적인 위협의 실체로 성큼 다가와 있다.

2. 북한의 핵실험 규모 및 위력¹¹⁾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국방부 및 정부의 평가는 북한이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투하된 것과 비슷한 위력을 가진 핵무기 1~2개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2003년 이후 제네바 핵합의를 파기하고 94년 봉인된 폐연료봉을 재처리한 것과 2004~2005년 5MW 원자로를 재가동한 후 나온 폐연료봉을 재처리한 것을 합치면 북한의 플루토늄의 양은 40~50kg에 달한다. 이것만으로도 핵무기 6~1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북한이 보유했을 것으로 보이는 10~20kt의 핵무기를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 사용될 경우 충격적인 결과가 초래된다. 미 국방부 및 중앙정보국(CIA)등이 지난 98년 비밀리에 모의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과 비슷한 15kt의 핵무기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500m 상공에서 폭발할 경우 62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11) 김선호, 전계서. pp.17~22

3. 북한 핵과 미사일의 전략·전술적 운용¹²⁾

북한의 미사일은 미사일 자체로서의 전략·전술적 가치보다 핵 및 화학무기 전체의 위력을 향상시켜주는 촉매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스커드여단은 스커드-B 발사대로 구성되어 개전초 우군의 중요시설과 공군 미사일 기지, 그리고 주요 산업시설과 인구밀집 도시지역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지휘체계 마비와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심리적 동요와 사회 불안감을 조성하여 전시공황상태로 몰아갈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은 선진국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지고 원형공산 오차(CEP)가 크기 때문에 전략목표를 정확히 타격하기 보다는 핵 및 화학무기 운반 및 투하용으로 사용될 확률이 높게 보인다. 즉 스커드는 340km 비행에 450~1,000m의 오차를, 스커드-C는 500km비행에 1,500~2,000m, 그리고 노동 1호의 경우 1,000km 비행에 2,000~4,000m의 오차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현재는 위성항법장치(GPS)등으로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 미사일들이 액체연료주입 등 발사준비에 걸리는 시간이 스커드가 1시간 30분이며, 노동은 3시간이며 주로 차량에 탑재된 이동식 발사대로서 운용되기 때문에 정보감시수단에 의한 추적 탐지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다.

4. 북한 핵에 대한 군사적인 대비방향

북한이 핵실험 성공을 공식 발표한 이상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전제로 우리의 대북전략 등 군사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비록 조악한 형태의 핵무기를 1~2개만 갖고 있더라도 이것이 실전에 사용된다면 엄청난 재앙으로 연결되고 전세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

12) 김선호, 전게서, pp.21~23

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한 대책수립이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대북정책의 방향전환과 한·미동맹의 강화와 함께 북한 핵무기의 전략적 사용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북한당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의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한반도 핵우산 정책을 확고히 재천명함은 물론 그것을 사용할 의지도 보여주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 선제공격에 의한 핵시설 파괴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제조시설을 무력화시키거나 파괴하기 위한 직접적인 군사적 조치를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생각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다. 북한이 무기급 핵물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핵시설이 알려진 위치이외에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이다.

북한전역에 걸쳐 총 8,000여 개소에 달하는 지하시설의 존재는 찾아내기가 힘들 것이다. 아프칸과 이라크에서 미 특수전 부대들이 실시한 것처럼 한미연합 정보자산 및 특수전 부대를 투입하여 정확한 타격목표를 사전 획득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시나리오는 2003년 미 국방정보센터(Center for Defense Infotmation)의 로빈슨(Colin Robinson)과 베이커(Stephen H. Baker)가 내놓은 ‘북한과의 대결 : 전쟁시나리오와 결과들(Stand-off with North Korea : War Scenarios and Consequences)¹³⁾을 통해 상세하게 공개되었다. 이보고서에는 전쟁 시나리오와 구체적인 무기의 종류, 전쟁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전쟁시나리오의 기저에는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정확한 위치 식별 및 이동식 발사대에 타격을 위해서는 한·미 연합 특수전 부대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3) 신동아, 2003년 7월호

제 4 장

미국과 한국의 특수전 교육훈련 체계 분석

제 1 절 미국 특수전 교육훈련 체계

1. 미 특수전 부대 연혁¹⁴⁾

제 2차 세계대전(1939.9~1945.8)간 1st Special Service Force(일명, Devil's Brigade), 5307 혼성부대, 알라모 스카우트(Alamo Scouts)부대 등의 다양한 특수부대를 운용하였음.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거의 해체되었던 특수전 부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미국 트루먼대통령(Harry S Truman, 1945~1953)의 지시 하에 미 육군 심리전(PSYWAR, psychological warfare) 센터 설립되었으며, 1952년 육군 심리전센터를 모체로 포트 브래그(Ft.Bragg)에 제 10특전단(Special Forces Group)이 창설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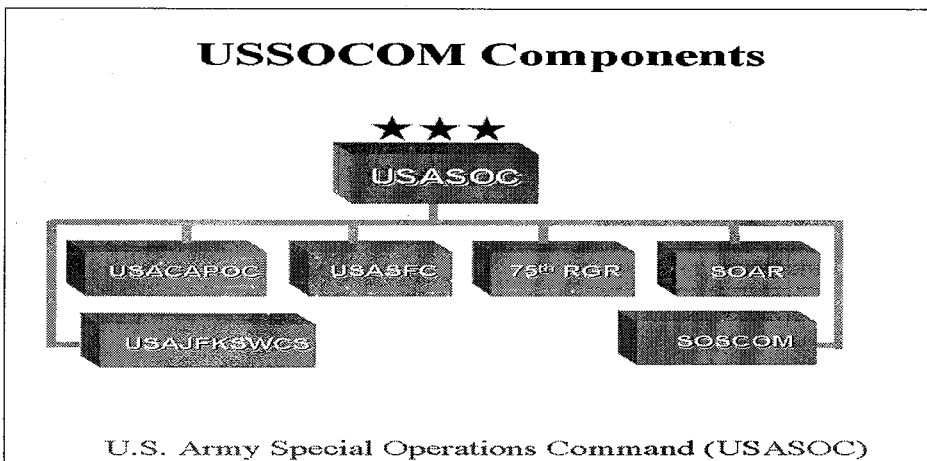
1953년 77특전단이 창설되었으며 이를 모체로 1956년 14특전단이 창설되어 태평양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1957년 일본 오키나와에 제 1특전단이 창설되었다. 1961년 제 1, 7, 10특전단으로 재편성되었으며 그해 제 5특전단이 창설되었으며, 또한 1963년에는 제 6, 8특전단이 창설되었음. 1969년 1월에는 미육군 특수전학교(JFK Special Warfare Center and School)가 미육군의 정식 학교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월남전(1954.8~1973.1)중에 제 6, 8, 9특전단이 해체되었고 월남전 이후 3, 6, 8특전단이 해체되었으며, 1984년 미육군 특수전학교를 다른 교육기관과 분리하였으며 1987년 4월 장교 특수전 병과를 신설하였다. 1990년 6월 제 3특전단을 창설하여 제 1, 3, 5, 7, 10특전단으로 증강하였으며

14) 인터넷, <http://tguconed.tagu.ac.kr/~ilsub/specialforces.htm>

제 19, 20특전단을 주방위군(National Guard)로 편성하였다. 현재 노스 캐롤라이나 포트 브래그에는 미육군 특수작전 사령부(USASOC, US Army Special Operations Command), 미육군 특수전사령부(USASFC, US Army Special Forces Command), 미육군 민사심리작전 사령부(USACAPOC, US Army Civil Affairs and Psychological Operations Command), 미 특수전학교 (USAJFKSWCS, US John F. Kennedy Special Warfare Center and School), 제 18공정군단(18th Airborne Corps), 제 82공정사단(82nd Airborne Division) 등의 부대가 위치해있다.



(그림 4-1) 미특수작전 사령부



(그림 4-2) 미 육군 특수작전 사령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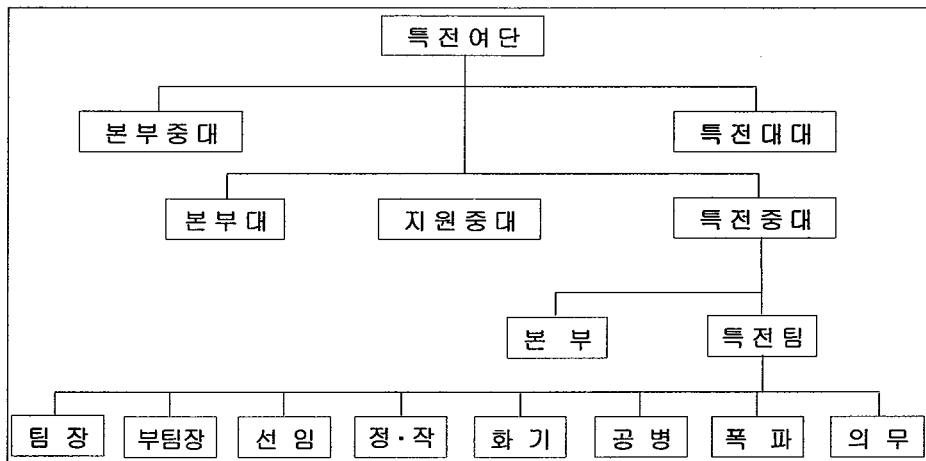
현재 미 육군은 제10 특전단을 비롯한 제1, 제3, 제5, 제7 등 5개

특전단과 주 방위군인 제19, 제20 특전단을 중심으로 육군특전부대사령부를 구성하고 있다. 현역인 각각의 특전단은 책임지역을 두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의 (그림 4-3) 미 특전여단별 책임지역과 같다. 이중 워싱턴주 포트 루이스의 제1 특전단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을 작전지역으로 하고 있고, 39분견대(DET - 39)는 우리나라에 위치한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SOCKOR)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다.



(그림 4-3) 미 특전여단 별 책임지역(Area of Responsibility)

이러한 특전여단은 아래 (그림 4-4) 미 특전여단 편성과 같이 구성되었다.



(그림 4-4) 미 특수전 여단 편성

특수전팀은 특수전 부대 기본단위이며 이러한 팀의 능력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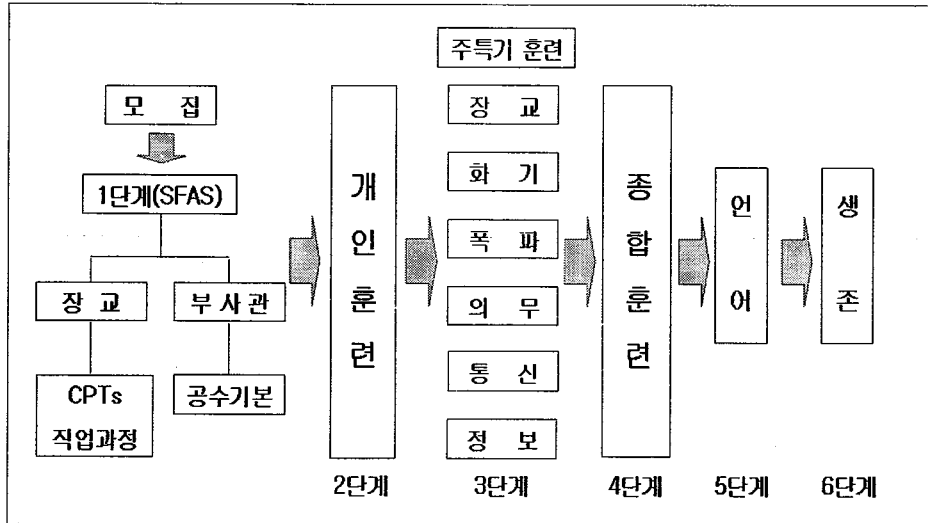
① 독립 혹은 대규모 부대의 일부분으로서 특수작전 계획 및 수행, ② 공중, 육상 혹은 바다로 지정된 작전지역으로 침투 및 퇴출, ③ 최소의 외부 지시와 지원으로 장기간 동안 원거리 적 지역에서 작전수행, ④ 토착부대를 조직, 장비, 훈련시켜 최고 1개 대대 규모까지 양성, ⑤ 다른 미군과 연합군, 기관들을 훈련, 조언 또는 지원, ⑥ 상급 기관으로부터 지시된 기타 특수작전 수행. 이러한 A팀은 1개 중대(한국:지역대)에는 통상 6개가 있으며 이중 1개의 수중 침투팀과 1개의 고공 침투 팀이 있다.

2. 미 특수전 교육훈련 체계

가. 지원 자격 및 특수전 요원 자격과정 훈련

그린베레는 하사이상의 현역군인(약 5년 이상 군 복무자)에게만 지원 자격이 부여되며 이미 공수훈련을 받았거나 아니면 받을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만 지원 자격이 부여된다.

그린베레가 되기 위해서는 3단계의 지원제(Triple Volunteering)로 우선 군에 지원해 일정한 기간을 복무하면서 부사관 과정을 마친다. 2단계로 82공수 사단과 같은 공수부대에 자원해 복무하면서 낙하산과 접한다. 만약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공수 교육과정에 자원해 4주간의 기본 교육을 이수한다. 그런 뒤 그린베레에 지원하여 보통 다음(그림 4-5)과 같은 자격과정 교육훈련을 받는다.



(그림 4-5) 미특수전 요원 자격과정 훈련¹⁵⁾

나. 제 1 단계 : 특수전 과정 입교를 위한 평가와 선발

먼저 교육 지원자들은 바로 특수전 교육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약 3주간에 걸쳐 SFAS에서 준비단계를 거쳐야한다. SFAS 과정의 중점은 전술적 기술, 리더쉽, 체력 향상, 동기부여 등이다. 훈련내용은 심리테스트, 체력검사, 수영 테스트, 달리기, 장애물 코스, 무장행군, 소규모 단위 전술, 야전 독도법 훈련이다. 이러한 능력이 어느 정도 구비하게 되면 특수전 훈련 입교 전 측정을 실시하여 평가 및 선발을 하게 된다.

다. 제 2 단계 : 개인 훈련과정

지원이 허락된 사람들은 일단 포트브랙에 위치한 특전교육대에 입교해 본격적인 훈련 과정에 들어간다. 개인 훈련과정 내용은 <표 4-1> 과 같다.

15) 육군교육사령부, 「세계각국의 특전부대 교육훈련체계 연구」, 2003, p35

주차	단 계	훈 련 내 용
1	MODULE I	• 훈련장 이동(Fort. bragg→Camp. mackall) • 군장검사 • 체력단련/격투기훈련 • 기본전투기술(차량/적포로수색, 장비조작요령 등) • 이동대형 및 이동기술 • 매복훈련(숙영지 주변)
2	MODULE II	• 체력단련/격투기훈련 • 매복작전 계획수립 • 명령하달 • 매복작전 FTX (2박3일)
3	MODULE III	• 체력단련 • 매복작전 FTX 및 평가 (5박6일)
4	MODULE IV	• 체력단련 • 습격훈련 (5박6일) • 무장강하
5	MODULE V	• 체력단련 • 권총/소총 사격술 예비훈련 • 권총/소총 사격(2일) • 도시지역작전(2일) • 복귀(Camp. mackall→Fort. bragg)

〈표 4-1〉 개인훈련 과정

2단계과정은 개인 훈련과정으로 하루 17시간씩 31일간 강도 높은 훈련이 실시된다. 우선 지원자들은 새벽 5시에 기상해 20Kg 무게의 배낭을 맨 채 30리 가까운 거리를 구보한다. 구보가 끝나면 곧장 PT로 표현되는 갖가지 체력훈련이 뒤따른다. 이후 독도법, 야지횡단, 육상정찰, 위장, 매복 등 보병 훈련과 함께 적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법 등 그린베레 대원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훈련이 실시된다. 2 단계 과정 중 가장 힘든 훈련이 육상정찰이다. 지원자들은 야간에 장애물을 통과해 12일 동안 혼자 목표지에 대한 정찰을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지원자는 혼자 식량과 은신처를 마련해야 한다. 민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울창한 산림지대에서 실시되는 이 과정을 제대로 마치는 사람을 절반도 채 안 된다.

최근 발간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극단적인 경우엔 성공률이 2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상정찰 훈련에 투입되지 않는 지원자들은 뗏목과 임시 교량을 만들거나 헬기에서 강으로 떨어지는 헬기 캐스팅 또는 헬기 레펠링 등의 훈련을 실시한다.

라. 제 3 단계 : 주특기 전문 과정

포트브랙에서 실시되는 3단계 과정은 전문과정이다. 지원자는 자신의 특기와 취향에 따라 과정을 이수한다. 전문과정에는 우리의 주특기 과정과 유사한 것으로 화기, 전투공병술(폭파), 통신, 의무, 정보 등 5가지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는다. 과정별 내용을 살펴보면 장교들은 케네디 특수전 센터에서 2개월에 걸쳐 실제 작전팀인 A팀 지휘 요령, 심리전술, 대 게릴라 전술, 다른 문화권 사람들을 다루는 법 등을 이수해야 하며, 특히 이동훈련단의 운영, 지휘, 대 테러전술 등도 이론과 실습을 실시한다.

일 자	내 용	일 자	내 용
1일차	장교 특수전과정소개 특수작전 편성/기능 특수부대 역사	11일차	강하훈련
2일차	체력측정 TAIS RESULTS, ATL	12일차	반란(insurgency)소개 insurgency의 요소
3~4일차	ATL	13일차	비정규전 작전자금 AFO/OPE Pilot team ops
5일차	계획수립절차 DA/SR IPB	14일차	180A/18Z 소개
6일차	E&R / UAR 계획수립	15일차	화기주특기(18B) 소개
7일차	근접항공지원절차	16일차	공병주특기(18C) 소개
8일차	GIS, S/W 교육	17일차	의무(18D) 소개
9일차	FALCON VIEW	18일차	통신(18E) 소개
10일차	침투/복귀계획수립 공수작전 계획수립	19일차	특수수색(SR) 외부강사 강의
20일차	특수수색 TTP	27일차	비정규전 원리
21일차	특수수색 계획수립	28~35일차	비정규전 계획수립
22일차	직접작전(DA) 소개 외부강사 강의	36일차	종교 교육 비정규전 브리핑
23일차	직접작전 계획수립	37일차	HTPM STX
24일차	Effect based ops 반란 및 테러의 구조 Targeting cellular Networks	38일차	지하조직(underground) 소개 외국방어훈련 소개 대게릴라전(CG) 소개 Advisor의 역할
25일차	혁명의 원리 게릴라전 소개 게릴라전 역사적 관점	39일차	Battle focus analysis 지역분석 및 평가
26일차	FID/UW 군수지원 보조부대 소개 테러/대테러 소개	40일차	FID 계획수립 전장에서의 미디어 FID 계획수립
41~45일차, FID 계획수립			
46~50일차, Interagency Training, W.DC (타군열외)			
51일차, 면담 및 Phase 3 out-briefing			

〈표 4-2〉 장교 특수전 과정 훈련내용

화기 과정은 11주로 소총에서부터 박격포, 휴대용 미사일 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소화기, 증화기 등 모든 화기와 탄약의 조작법을 망라한다. 또한 사제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교육도 부과된다.

전투공병술 과정은 8주간에 걸쳐 폭파와 함께 기초적인 건설 지식도 습득해야 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시되는 것은 폭파 술이다. 지원자들은 이론과 함께 실습을 통해 거의 모든 종류의 폭약을 사용, 제조,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한다. 또 실전에 투입됐을 경우 적의 눈에 발각되지 않는 은신처를 만들거나 캠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초보적인 건설 지식도 주로 실습을 통해 터득된다.

통신과정 역시 5주간의 이론 교육, 3주간의 실습 등 8주간에 걸쳐 실시된다. 이 과정은 일반적인 무전기와 모르스 부호로 지칭되는 암호 사용법부터 인공위성을 통한 송수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전술을 배운다. 특히피스가 국유림(Pisga Forest)에 4명씩 1개조를 편성, 낙하산으로 투입돼 기지와 24시간 교신을 함으로써 실전분위기를 익힌다.

의무과정은 21주로 전문가 양성 훈련 중에서 가장 길다. 우선 지원자들은 캠프 맥카레서 실시되는 교육에 입교하기 전 8주 동안 기초적인 이론과 응급처치 등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 그 다음 텍사스주 포트 샘 휴스턴 군 의료원에서 6주 동안 병의 증상과 치유법 등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을 이수한다. 마지막 7주 동안은 각자의 군 병원에서 현장 실습과 포트브랙의 고급과정을 통해 주로 총상 관련 상처에 대한 치료법을 이수한다.

마. 제 4 단계 : 종합 훈련

종합훈련은 흔히 로빈 세이지(Robin Sage)로 불리는 3주간에 걸친 공동생활을 하면서 비정규전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캠프 맥쿨을 발진

가지로 지원자들은 우선 주어진 시나리오에 따라 팀을 구성한다. 팀이 구성되면 지원자들은 5일에서 1주일 동안 온갖 경우를 상정해 놓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한다. 대응책이 마련되면 지원자들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가장 삼림이 울창한 유워리(Uwharrie National Forest)에 교관들과 함께 낙하해 침투한다. 2주간 실시되는 이 훈련의 목적은 적이 침투했을 때 배후에서 게릴라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키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일단 침투에 성공한 지원자들은 현지인들을 규합해 게릴라를 조직하여 적 배후 교란임무를 성공리에 완수한다. 이 단계까지 성공리에 마치는 요원은 지원자 가운데 10~20%에 불과하다.

기타과정으로 언어교육, 특전 지휘관 자격과정, SERE(Survival Escape Resistance Evasion)과정, 대테러 과정 등이 있다.

또한 그린 베레는 해당 작전 지역 활동 지역 국가들의 언어를 최소한 한 가지 이상씩 습득해야 한다. 전투부대로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게릴라를 훈련시키는데 운용된다. 각 요원은 최소한 영어 이외의 1개국 이상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¹⁶⁾

이외에도 세상이 점점 도시화되고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도시 시가전 능력이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SFAUC(Special Forces Advanced Urban Combat), 즉 특수부대 시가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¹⁷⁾

바. 부대훈련

부대에 배속된 요원들은 부대의 특성에 부합한 훈련을 실시하며 다시 특성을 고려하여 고공강하, 수중작전, 산악, 밀림지 활동 팀 등에 배

16) 김선한, 「세계의 특수부대, 비밀전사들」 하권, 서울 : 디지털에프케이, 2000, p.15

17) 월간 플레톤 편집부, 「세계의 특수부대 II」, 서울 : 멀티매니아 호비스트, 2002, p.15.

속되어 전문가로서의 힘든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고공강하 훈련의 경우 흔히 스카이다이빙으로 불리는 자유강하(Free Fall)외에도 고고도 산개(High Altitude High Opening)로 불리는 강하법도 함께 습득한다. 수중침투의 경우도 흔히 산소탱크로 불리는 기존의 개방회로식 외에도 수면 위에 오르지 않고 산소의 재공급이 가능하고 물방울이 일지 않는 폐쇄회로 탱크의 사용훈련도 실시한다.

제 2 절 한국 특수전 교육훈련 체계

1. 연 혁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남침을 개시하자 자생적으로 수많은 유격부대 및 반공단체들이 유엔군의 작전을 지원했으며 그 해 12월에는 일부요원이 미군의 통제 하에 유격전을 전개하여 크게 기여하였으며 휴전 후 53년 8월 유격부대는 국방부 8250부대로 통합되었고, 54년 1월 육군본부로 예속되어 정규군으로 편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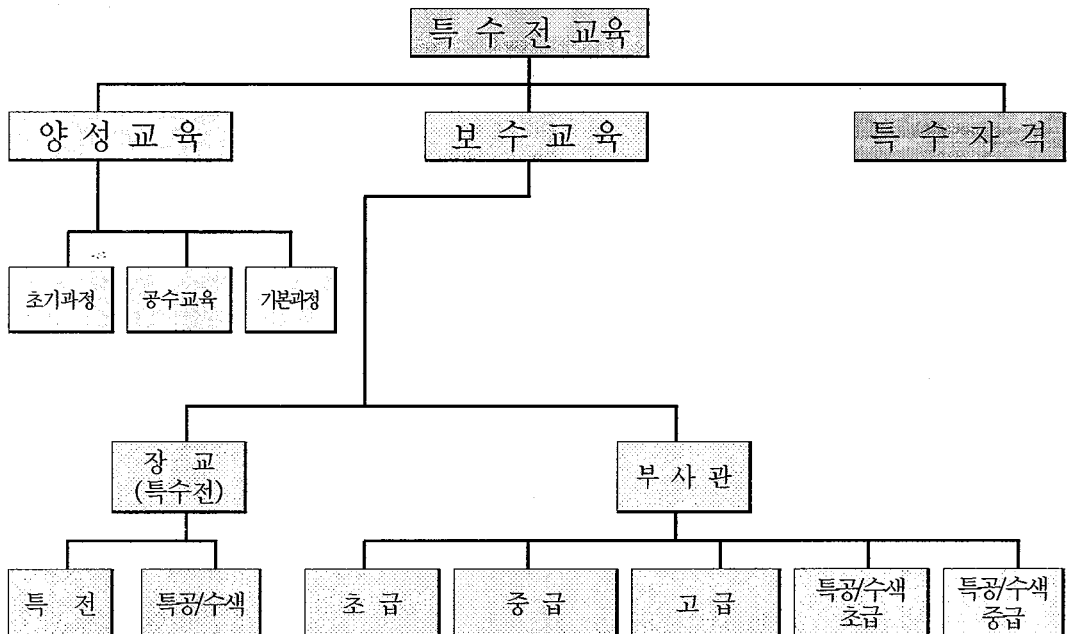
이후 북한이 끊임없이 침투를 해오자 육군본부 특전감 실에서는 특수전 부대 창설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1958년 4월1일 유격요원의 일부를 중심으로 제1공수단을 창설하여 일본의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 육군 제2, 제77 특전단 소속 요원들로부터 공수교육과 기초적인 특수전 교육을 이수하였다. 1968년 울진, 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와 관련, 1969년 1월과 2월에 제1, 2유격여단이 창설되었고, 공수단이 제1공수특전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제1, 2 유격여단과 제1공수특전단으로 8월 18일에 특전사령부가 창설이 되었다. 이후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0개 공수특전여단과 0개 특수 임무단, 특수전교육단으로 성장하였다.

2. 지원 자격

특수전요원의 지원자격은 고졸이상 학력 소지자로서 만 18세 이상 27세 이하이어야 하며 여자는 미혼 여성이어야 한다. 신체조건은 신장 166Cm(여성155cm)이상, 체중 52Kg(여성45.1Kg) 이상, 좌우 시력이 0.8 이상으로 색약 및 색명자는 제외된다. 또한 자격 및 경력, 체육 특기자 및 무도 단증 소지자는 가산점을 준다.

3. 특수전 교육훈련 체계

특수전 교육 목표는 특수작전 수행에 필요한 특전기질과 전투기술을 습득케하여 싸워 이기는 정예 특수전 요원을 육성하는데 있으며 특히 특수전 부대 훈련과 연계하여 작계 임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며, 특수전 교육체계는 아래 (그림4-6)와 같다.¹⁸⁾



(그림 4-6) 한국 특수전 교육체계

18) 「'06년도 교육계획」, 특전사, 2005, pp. 2~5

가. 양성교육

신체검사에 일단 합격한 지원자들은 14주간에 걸쳐 초기과정, 공수교육, 기본과정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1) 초기과정은 특전 부사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자질을 구비하기 위해 군인기본자세와 투철한 군인정신 함양, 기초체력단련과 개인 전투기술을 습득하는데 중점을 둔다.

2) 기본과정은 특전부대 정신 및 기질을 구비한 특전 부사관을 양성하기 위해 특전훈과 기질함양, 특전기본자세 및 기초체력완성, 특전기본 전투기술 습득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3) 공수교육은 특전기질이 충만한 특전 부사관 완성과 공중침투 능력을 구비시키기 위해 3주 동안 공중침투 능력 배양과 강인한 체력단련과 특전훈 및 특전기질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나. 보수교육

보수교육은 교육 후 야전에서 수행해야할 직책과 임무에 맞게 훈련내용을 선정하여 계급에 맞는 훈련을 실시하며 장교는 5주간 1회 실시하며, 부사관은 계급별로 초급 11주, 중급 10주, 고급 8주간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주로 주특기 및 일반학, 전술학 및 전술 종합훈련 등이 있다.

1) 부사관 초급 과정

부사관 초급과정은 양성교육 14주 이수후 교육을 받게되며 특전여단에서 임무수행에 필요한 침투, 정찰감시, 타격작전 등의 기본 전술과목과 폭파, 화기, 의무, 통신주특기별 주특기교육 및 정신교육과 부대관리 등의 교육을 받는다.

2) 부사관 중급 과정

부사관 중급과정은 4~6년차 인원들이 입교하게 되며 과정의 교육목표는 전투조장 임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10주간에 걸쳐 북한군 전술, 비정규전, 민사심리, 생존, 항공화력유도, 주특기교육을 받는다. 특히 중급과정은 특전부대 전투력의 핵심으로 연령은 20대 후반으로서 가장 체력이 우수하고 전술전기 능력이 우수한 집단이다.

3) 부사관 고급과정

부사관 고급과정은 팀에서 선임 부사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10년차 이상의 자원이 입교하며 이들의 교육목표는 중대장 직무대리 능력 배양에 있다.

교육내용은 기본 전술과목에 대한 보수교육과 주특기 보수교육 및 지휘관 및 참모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으나 대체적으로 교육시간이 부족하다.

4) 특수전 장교과정

특전부대 전투력 창출의 핵심인 중대장, 지역대장, 부중대장 등의 장교들이 대상이며, 특수전 수행 및 작전계획수립, 부하 지도능력을 구비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육기간은 6주이며 교육대상은 특수전부대 전입 장교로 계급구조는 소위부터 소령까지이며 한 학급으로 편성되어 교육을 받으며

교육내용은 침투, 정찰감시, 타격, 공중재보급, 비정규전, 생존 등의 기본 전술과목과 주특기 및 항공화력유도에 대한 소개교육을 받는다.

다. 특수자격 교육

특수자격 교육은 작계 임무수행에 필요한 고도의 전투기술을 구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자격과정에는 공수기본교육, 강

하조장, 고공, 고공조장, 해상 척후조, 낙하산 포장 및 정비 교육이 있다.

제 3절 미국과 한국의 특수전 교육훈련 체계 비교

1. 임 무

미국과 한국의 특수전 부대 임무를 비교 분석해보면 아래 <표4-3>와 같다.

특 수 부 대	임	무
미 국	- 비정규전 - 외국국내 방위 - 특수수색 - 대테러 -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 직접작전 - 정보작전
한 국	- 경찰감시 - 타격작전 - 중요지역통제 - 인원구출 및 탈출 - 비정규전 - 침투 및 국지도발대비작전 - 안정지원작전 - 평화지원작전	- 화력유도 - 지원작전

<표 4-3> 특수전 부대 임무 비교

임무면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특수전 부대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은 현시간에도 세계각국에서 상기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며, 한국은 전시에만 상기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은 비정규전을 특수전의 기본개념으로 설정하고 교육하고 있지만 한국은 경찰감시와 타격작전 등 특수전 부대가 직접 실시하는 내용을 주임무로 하고 교육시간 또한 경찰감시와 타격작전 등의 전투기술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2. 지원 자격

특수부대원이 되기 위한 지원자격은 아래 <표 4-4> 와 같다.

특 수 부 대	지 원 자 격	비 고
미 국 Green Beret	- 하사이상의 현역군인(약5년이상군복무자) - 정신적, 육체적, 심리상태 양호	
한 국	- 고졸이상 학력 소지자 - 만 18세 이상 25세 미만, 신체조건 양호 - 무도 유단자는 가산 점수 - '06년부터 특전사 복무 현역병 모집(현재 8명)	

<표 4-4> 특수전 부대 지원자격

상기 내용을 분석해 보면 미국은 5년이상 현역 복무자중 신체적·정신적으로 우수인원을 선별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한국은 고졸이상 학력 소지자의 민간인을 모병하여 선발한다. 그러나 '06년부터는 특전사 복무중인 현역병이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며 현재까지 8명이 배출되었다. 공통적인 특수부대 지원 자격은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양호한 사람만이 지원 자격을 주며, 군에서 바로 지원하거나 체육특기자와 자격증 소유자는 가산점을 준다. 이러한 요원들은 교육을 시키는데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 복무 활용 가능한 자여야 한다.

3. 교육 기간

미국과 한국의 특수부대 양성을 위한 교육기간을 비교 분석해보면 우선 미국은 특수전 병과가 별도로 있으며 신분 및 주특기별로 각각 교육기간이 상이하다. 반면에 한국은 과정별 과목시간이 동일하며 특히 장교 특수전 과정의 경우에는 소위부터 소령까지 한개 학급으로 구성되어 교육을 실시하며 기간도 동일하다. 미국과 한국의 과정별 교육기간은 아래 <표 4-5> 와 같다.

구 분	기 간			비 고
미 특수전 학교	장 교		00주	· 특수전 기간은 주특기 별로 상이하며 개인 능력별로 차이는 있 으나 모든과정 이수시 1~2년 정도 소요되며 별도의 보수과정은 없음
	주 특 기	폭 파	00주	
		화 기	00주	
		의 무	00주	
		통 신	00주	
	생존훈련		0주	
	언어훈련		00~00주	
	RANGER		0주	
한국 특전교육단	양성과정 (00주)		초기과정 0주	· 최초 양성 및 초급 교육이수후 일정기간 경과후 보수교육 실시 하며 중복 되는 교육 내용 있음
			공수교육 0주	
			기본과정 0주	
	초급과정		00주(주특기 0주)	
	중급과정		00주(주특기 0주)	
	고급과정		0주	
	장교과정		0주	
	자 격 과 정	강하조장	0주	· 자대 복무중 선발인원 한하여 특수자격교육 기회부여
		고공기본	0주	
		고공조장	0주	
해 척 조		0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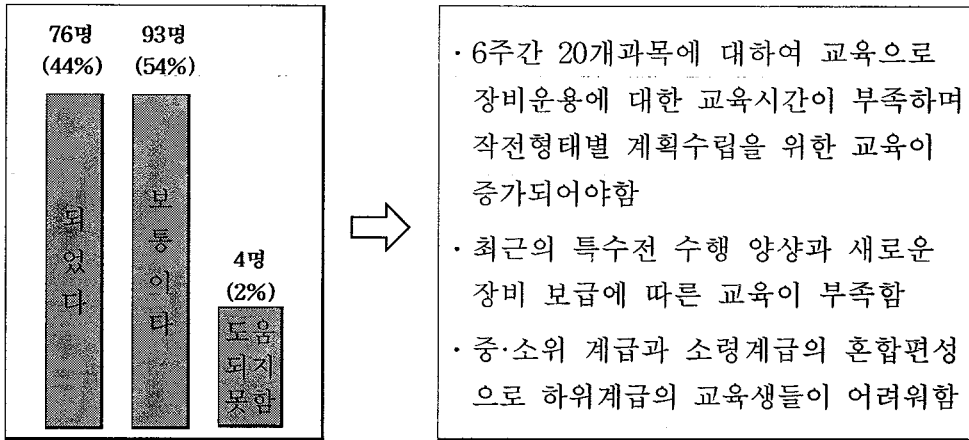
〈표 4-5〉 특수전 부대 교육기간 비교

1) 장교과정

장교과정만 단순히 비교한다면 미국 특수전 교육이 26주가 더 길다. 또한 교육내용면에서도 한국군은 침투, 정찰감시, 타격 등 주로 전투기술면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지만 미국은 특수전 교육을 받기위한 기본과정에서 이러한 전투기술을 교육하고 특수전 교육간에는 부대지휘절차에 의한 계획수립과 격리지역 활동, 비정규전과 팀단위 전술훈련을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06년 교육과정에 대한 설문결과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아래 (그림 4-7)

와 같이 나타났다.



(그림 4-7) '06년 특수전 장교과정 교육 만족도 설문 결과

교육기간에 대한 설문결과는 아래 (그림 4-8)와 같다

적 당 하 다	길 다	짧 다
61명(35%)	2명(1%)	110명(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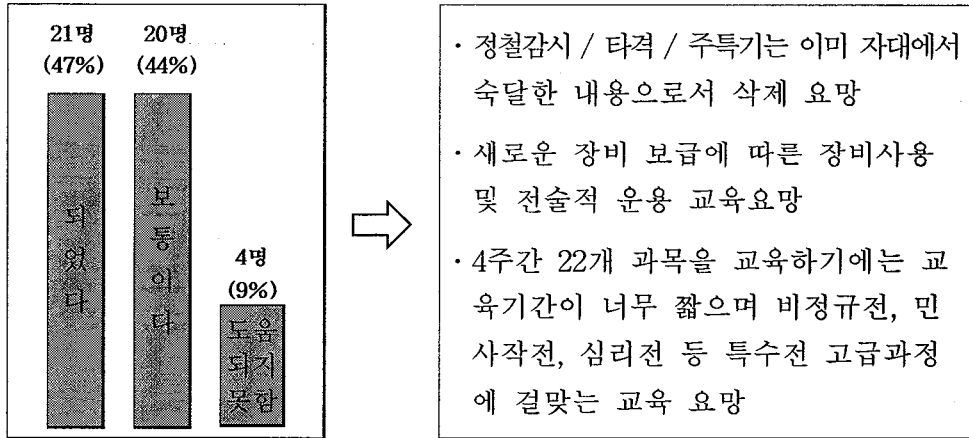
(그림 4-8) '06년 특수전 장교과정 교육 기간 설문 결과

2) 부사관 과정

미 특수전은 부사관 과정이 별도로 편성되지 않으며 전문 주특기과정이 주특기별로 편성되어 있다. 각 주특기별 교육목표는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가능하도록 24주~52주 기간동안 교육을 한다.

반면 한국 특수전교육단은 초급 과정에서 5주 교육을 통해 주특기 임무수행능력에 목표를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팀의 편제 장비 운용능력을 구비한다. 이후 각 여단에서 4~5년 임무수행후 장기 복무자로 선발이되면 다시 특수전교육단에 중급 보수교육을 들어오게 되며 4주간의 주특기 보수교육을 받고 있으나 많은 교육 내용이 초급 과정과 중복되고 전문성을 구비하기 제한된다. 특히 교육생 수료시 설문결과에 의하면 현재의 교과편성중 자대에서 숙달한 과제에 대한 삭제

요구가 37%나 되었으며 교육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인원이 43%나 되었다. 또한 교육결과에 대한 만족도의 질문에는 53%가 보통이거나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그림 4-9) '06년 부사관 고급과정 교육 만족도 설문 결과

또한 특수전 부대 임무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교육과목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비정규전, 인원 구출 및 탈출, 중요지역 통제, 지원작전 등에 대해 교육을 요구한 것이 46%로서 대체적으로 현재의 교육과목과 교육기간에 변화를 원했다.

4. 교육 내용면

교육 내용은 교육기간과 연계되는 부분으로서 미 특수전 교육은 과정별 구분 없이 장교 / 부사관이 함께 교육을 받으며 최초 기초단계부터 종합실습 단계까지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반면에 한국 특수전교육은 앞에서 언급했지만 신분 / 계급별로 구분되어 보수과정 개념으로 연간 수개의 학급으로 편성하여 교육한다.

특수전 과정을 기준으로 양국 장교 특수전 교육간의 교육과목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특수전 교육(00주)		한국 특수전 교육(0주)	
기 간	내 용	기간	내 용
기초이론교육(0주)	· 체력단련, 강하훈련, 주특기		별도의 과정 없음
개인훈련(0주)	· 독도법, 특전기본과제(편제화기 조작 / 숙달), 정보병전술 (수색정찰 정찰가자면성 매복, 타격)		
주특기훈련(00주) (장교과정 기준)	· 체력단련(호신술), 합동작전, · 화력지원(항공유도), 전장정보분석, · 침투/퇴출, 도피/탈출, 표적분석 (취약점/파괴방법), 특수정찰, · 직접작전계획수립(부대지휘절차에 의한 계획수립 / FTX), 환자후송, · 우방국내 방위력 향상교육, · 반란/반란제압, 민사/심리전, · 비정규전 등	0주	· 주특기 소개 (폭파, 화기, 의무, 통신) · 북한군 전술 · 부대지휘절차 · 침투 / 정찰감시 · 타격 / 항공유도 · 민사심리/비정규전 · 공중재보급 · 침투 및 국지도발 · 생존
종합실습(0주)	· 격리지역 활동 · 침투 / 비정규전 수행 · 생존 / 도피 및 탈출	0주	· 격리지역 활동 · 침투/정감/타격 · 공중재보급

〈표 4-6〉 특수전 교육내용 비교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미국은 세계 각지에서 여러유형의 특수전을 실시하므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정신력과 체력, 주특기를 비롯한 세부 개인 전투기술과 팀단위 훈련 및 비정규전을 숙달하는데 중점을 두

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개전초 첩보 수집과 주요시설 타격에 중점을 두고 전술보다는 전투기술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다.

제 5 장

장차전 양상을 고려한 특수전 부대 교육훈련 체계 발전 방향

제 1 절 부대구조 및 편성

장차전 대비, 안보환경 변화에 적합한 특수전 부대 구조로 발전하기 위해서 중기적으로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이 상존하고 있으며, 남·북 관계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비 특수전여단, 특수임무단, 특수유격여단 등으로 구분 편성하여 부대 운용효과를 극대화 하고 다양한 상황 변화에 대처 할 수 있도록 다기능화 시키며, 정예화 및 기동화 시켜 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보 불안요인이 증대될 것이므로 민족, 영토, 해양권익, 환경마찰 요인, 무역 등을 둘러싼 주변국가의 소규모 지역분쟁이 빈발될 것이며, 대테러 및 마약, 재해·재난구조 등 비군사적 위협 대비작전에 대응하고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특정 위협에 대비한 소수 정예화되고 전문화된 합동 특수작전 부대구조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발전하기 위해서 육·해·공군의 특수전 전력을 전·평시 통합운용하여 통합전투력 발휘를 할 수 있는 합동 특수작전 사령부로서 독자적인 침투 및 기동수단을 보유하여 불특정 위협요소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신속 대응군의 모습으로 발전하여야 하겠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침투수단과 고성능화, 경량화된 첨단 무기체계를 구비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구조개선으로 작전수행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첫째 기능 및 유형을 고려 다기능화·정예화·기동화된 구조 및 부대로 편성해야 한다. 장차전에서의 예상되는 불특정하고도 다양한 위협에

대비하여 특수전 부대의 역할 및 기능에 따른 부대유형을 다양하게 편성하여 통일이전에는 특수전여단(근접 및 중심작전지역 여단), 특수타격여단, 특수유격여단, 특수임무단으로 구분 편성하고, 침투수단을 제공하면서 연합·합동작전을 실시하는 공특 및 해특부대는 상급부대의 부대기획과 연계하여 전·평시 작전 통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¹⁹⁾

둘째 합동 특수작전 부대구조로 발전시켜야겠다.²⁰⁾

현재의 정보화, 과학화 추세가 더욱 가속화 될 미래의 특수전 부대는 불특정하고도 다양한 위협의 변화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자주적인 군사전략 및 전쟁수행능력이 요구되는바, 이를 위해서는 장차전의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군 통합전투력 발휘가 보장되고, C4I체계 발전 및 효율적인 국방자원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평시 특수전 부대가 별도의 지휘체계를 유지하다가 전시에만 연특사를 창설하여 통합운용하는 현 운용체제는 통합된 작전계획 발전의 제한과 각군의 이해상충으로 침투자산 전력화의 추진이 제한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특수전 부대는 육·해·공군의 분산된 특수전 전력을 전·평시 통합 운용함으로써 전투력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휘체계를 일원화 하고 실시간 통합전투력 발휘가 보장될 수 있도록 C4I체계를 발전시키는 등 통합군제에 의한 “합동 특수전 사령부” 창설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²¹⁾

그리고 장차전의 양상을 고려해 볼 때 대 주변국에 대한 견제전력과 대테러, 마약, 재난·재해 등 비군사적 위협 대비작전, 후방지역 작전지원 등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부대전력이 필요한 바, 이에 신속히 대응

19) 특전사, 「미래특전부대 종합발전계획」 2003, pp33~48

20) 국방대학교, 「장차전에 대비한 합동특수작전 발전방향」, p31

21) 합동참모본부, 「합동특수전」 1995, pp16~17.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전문화된 다목적 신속대응군으로서의 특수전 전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 2 절 교 리

장차전에서 예상되는 특수전 부대의 다양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작전, 국지도발 대비작전 및 비군사적 위협대비 작전교리의 발전과 장차 통일이후 전장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적 특수작전 및 다국적군 작전교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기적으로 한반도에서의 미래전은 소산 및 정장확대, 효과의 집중, 적중심 직접타격, 전장의 가시화, 전투력 승수 효과 극대 등의 양상에 따라 첨단무기 및 장비를 통한 기술적인 기습을 달성하기 위한 교리가 발전되어야 할 것이며, 한반도에도 비군사적 위협이 돌출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고 그 위협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에 즉각 대처 능력을 갖춘 특수전 부대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바, 이에 대비한 수행교리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이후 전장환경 변화(전장확대 및 실시간 대응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연합 및 합동작전을 위한 「한국적 특수작전 교리」를 새롭게 정립해나가야 할 것이며 미래의 다차원 동시통합전투수행 여건에 부합하고 세계 평화유지를 위한 합동 및 다국적군 작전수행을 위한 교리를 정립시켜야 하겠다.

첫째, 연합 및 합동특수작전 교리를 지속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 다차원 동시통합 전투를 수행하기 위한 동시·통합 전투 승수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연합 및 합동작전 교리를 지속 보완하고 해·공군 등 타군의 능력과 역할은 물론 제병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합동·협동교리로 발전시켜야 하며 임무와 작전환경, 부대구조, 무게체

계의 변화에 따라 교리의 지속적인 보완이 요망되며 팀단위 작전을 확대하여 지역대, 대대단위의 작전교리를 발전시켜 다양한 임무에 대처해야 한다. 특히 실시간 정보유통과 육·해·공군 전력의 통합 운용시스템 및 운용교리를 정립하는 한편 특수전사령부가 중심이 되어 각군의 전력을 통합한 합동특수작전 교리를 정립하고 연합사 및 합참의 민사 및 심리전 지원활동에 대한 적후방지역에서 특수부대의 수행교리를 부대 편성 및 교육훈련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보완시켜야 한다.

둘째, 정보 및 정밀타격(항폭유도) 수행교리를 발전시켜야 한다.

전 전투공간내에서 정보우위 달성을 위한 특수전 부대의 정보교리와 특수전팀과 공군의 정밀타격전력이 결합된 항폭유도에 대한 교리는 조기에 정립시켜야 할 것이며 특수전팀의 첩보보고와 ADOCS등 C4I체계를 연동시키는 특수전 부대의 첩보 및 정보유통체계에 대한 교리를 발전시켜야 하며, 이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그리고 장차 예상되는 사이버전에 대비한 특수전 부대의 역할과 관련된 교리를 정립해야 한다.

셋째, 비군사적 위협대비 작전시 특수전 부대 작전수행 교리 정립을 위해 단기적으로 국지도발대비작전 및 대테러 작전교리를 정립하여 활용하고 중기적으로 국가치안유지활동, 평화유지활동시 특수전 부대 운용교리 정립이 시급하며 장기적으로는 국가기능회복지원, 국가행사지원, 대민지원(재해·재난구조)시 특수전 부대 운용교리가 정립되어야 한다.

넷째, 신속대응군 개념의 작전교리 발전을 위해 저장도 분쟁과 국지도발 대응, 주변국 분쟁지역의 투입 등 신속 대응이 요구되는 작전시 전개시부터 정찰 및 협조, 작전실시, 복원하는 제반 절차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다섯째, 중·장기 교리소요 중 특수전 분야는 과학기술과 감시장비의 발달에 따라 침투기술 분야를 육상, 해상, 공중으로 구분, 구체화 하여 발전시키고 보병부대는 각 계대별 교범이 발간되어 있으나 특전사는 특전여단과 특전중대 등 계대별 교범이 발간되었으나 아직은 미흡한 상태이며, 특히 비정규전관련 교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차전 양상을 고려하여 비정규전과 민사작전, 심리전 등의 교리가 발전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교육과정도 보완되어야 한다

제 3 절 무기체계

미래전은 군사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인하여 감시거리, 정확성 등 감시능력이 향상되고 가용무기체계의 사정거리가 확대되며, 통신지원 면에서 전송속도가 증가되고 실시간 동영상 정보제공 등 확장된 영역에서의 전쟁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전투현장 및 지휘소간 시간·공간적 제약이 없는 전장의 가시화가 달성되고 실시간으로 표적을 획득하여 적 중심을 타격하는 정밀타격전, C4I체계 중심으로 다양한 수단을 통합하는 동시통합작전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비대칭, 비군사적 전쟁수행 방식의 발전으로 레이저무기, 비살상무기가 보편화 될 것이다.

급속도로 발전한 기술혁신과 군사과학기술 발전은 이러한 미래전 양상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최근의 아프칸전이나 이라크전에서 위력을 발휘한 광역정보전력이나 정밀유도무기 및 특수장비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이라크전에서 특전부대 역할은 개전초 또는 이전에 침투하여 주요거점을 확보하였으며, 주요표적에 대한 실시간 표적정보제공으로 정밀폭격을 유도하였고 능력범위 내 핵심표적을 타격하는 등

전쟁승리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양상에 비추어볼때 우리 특수전 부대 전력구조의 현 주소는 더욱 빠른 속도로 미래전에 대비한 전력보강이 절실한 실정이다.

첫째, 지휘·통제·통신분야는 군 종합정보통신망 추진과 연계 자동화 구축과 기지통신시설의 생존성 및 기동성을 보완하고 다기능 위성통신 무전기 편성과 임무형태를 고려하여 고도의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는 초소형 원거리 통신장비를 확보하여야 하겠으며, 현재 일부 팀에만 지급되어있는 항공유도 무전기를 위해 연합공군전력과 교신가능한 공지통신무전기를 확대 제공해야 한다.

둘째, 정보분야는 특수전 부대 지휘소 정보유통과 자료처리 및 지원 체계 구축으로 적시적인 기상지원체계 구축과 인공위성 및 항공정보자료 지원시스템이 요구된다. 실시간 정보전파 및 첩보의 자동화처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특수작전 상황통제기를 조기에 도입하여 기지무전기와 연동 표적첩보의 자동수신 및 분석·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전출처 정보 직수신 및 종합분석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주·야간 감시, 표적제원 산출, 위치정보확인, 영상정보전송 등이 가능한 통합감시장비와 감시, 도청, 자폭기능이 있는 초소형 무인비행체 및 로봇정찰체계를 구축해야겠다.²²⁾

셋째, 기동분야는 연합공수자산지원 및 공중우세권 확보와 무관하게 전천후 침투를 보장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침투수단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공군 및 합참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실시하고 MC계열 항공기 확보 및 회전익 항공기에 전방 적외선 관측장비 장착으로 전천후 침투능력을 구비하고 해척조 침투용 스텔스 반잠수정 및 고속단정 도

22) 국참대, “비정규전부대 운용발전에 관한 연구,” 1999 pp45~51

입으로 생존성이 보장된 해상 고속침투 능력을 보유토록하고 전선침투 팀의 통로개척을 위한 휴대용 지뢰탐지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넷째, 화력(타격체계)분야는 적 요새 및 갱도, 적은거 및 저항거점 등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고위력 연료기화로켓탄과 계류중인 항공기, 주요기지등을 원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휴대용 미사일을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방호 및 생존분야는 적 야시장비 및 적외선장비의 관측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 화학성분, 중금속, 수인성병원균 등을 탐지 및 정화 할 수 있는 생물학 탐지기 및 휴대용 개인정수기를 확보하는 한편, 고립된 요원에 재보급이 가능한 원거리 화물유도시스템에 의한 재보급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제 4 절 특수전 부대 교육훈련체계 발전 방향

특수전 부대 요원은 전쟁시, 분쟁시, 평화시, 언제라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전 부대 요원을 양성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평소부터 차근차근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제1, 2, 3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장차전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대구조를 미래의 위협에 대비한 구조로 개선해야 하고, 무기체계와 교리도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기초로 한 특수전 부대의 요원 선발로부터 현행 및 장차전에 대비한 교육훈련, 이에 따른 강인하고 반복적인 훈련 과정과 전문적인 자격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의 특수전 부대 교육훈련 발전방향은 장차전 양상을 고려한 현재의 문제점 위주로 발췌하여 발전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1. 특수전 부대 전문 인력 획득

특수전 부대 교육훈련을 논하기 이전에 먼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우수인력의 확보이다.

먼저 장교들은 특수전 부대가 육체적으로 고생되고 장기간 야외 훈련 및 대기 등으로 가정생활이 열악하여 전입을 기피하여 우수인력 확보의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부사관은 병력 선발 시 지·덕·체·인성·적성·특기 등 우수자원을 엄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선발제도가 미흡하고, 고령 부사관의 해소 대책 부재로 전투력 발휘의 핵심직 위인 중대 선임담당관의 고령화로 팀 전투력 발휘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인사 적체 현상이 발생 복무의욕이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장교는 특전사 근무 선호도를 향상시켜 우수자원을 확보하고, 부사관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모병선발제도를 강화하고 전투직위에 보직된 고령 부사관 해소 대책을 강구하여 실질적인 전투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²³⁾ 구체적인 대안으로 미국도 1987년 특수전 병과를 창설하였다. 그전까지는 현재의 한국군과 동일하게 보병 병과 중 특전 특기로 복무하였으나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특수전 병과를 창설하였으나 초기에는 현재의 한국처럼 비선호 대상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체계가 정착되고 또 장차전에서 특수전 부대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현재의 미 특수부대는 선망과 첨단과학군의 상징이 되어있다.

따라서 합동 특수전사령부 체제하에 육·해·공군 통합 특수전병과를

23) 박원재, 「특전부대 모병업무 발전방향」 교육사령부, 2002. p.6-1.

창설하여 전문인력을 획득 및 양성한다면 현재의 미 특수부대와 같은 구조와 전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 현재 및 장차전에 대비한 지속적인 교리 발전

교리는 훈련을 선도하고 훈련은 바로 실전과 같다.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특수전 부대 교리 발전이 요구된다. 1996년 6월 1일 특수전 교육단이 육군 교육사 예속으로 전환되면서 특전사 교리 발전 업무가 전체적인 육군의 틀에서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기회는 가지고 있었지만 특수전 부대에 대한 교리발전은 다소 정체되었다.

1999년 6월 1일부로 특수전교육단이 다시 특전사로 예속이 전환되어 교리발전업무는 많이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미흡한 편이며, 현재 및 장차 특수전 부대 역할에 대한 교리발전이 부족하다.

현재 특수전 부대에서 운용중인 교범은 기준교범인 특수전과 운용교범인 특전여단, 특전중대, 생존, 그리고 주특기 교범 5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장차전 양상을 고려시 비정규전, 항공화력유도, 민사심리작전, 인원구출 및 탈출, 연결 및 복귀 등이 추가로 연구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테러등 특수한 범죄 및 국지적인 교전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교리를 발전시켜야한다.

따라서 특수전 부대의 훈련 및 실전에 대비한 교리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미국, 영국 등 과거에도 싸웠고 현재도 싸우고 있으며 미래에도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특수부대 교리 발전과정을 참고로 하고, 특히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특수부대 교육훈련체계를 분석하여 우리의 실정에 부합한 교리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3. 무기체계 발전에 따른 훈련강화

훈련은 교리의 발전이나 무기체계 및 장비의 발전에 따라 변한다. 특수전 부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신수단의 발전이다. 현재의 특수전 부대의 작전 범위는 불과 20년 전 보다 상상도 못할 수준으로 끌어 올랐다. 모르스 부호를 치거나 정보를 전하던 무전기는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일종의 무선 인터넷 수준까지 발달했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암호기술, 송수신 주파수를 수시로 변경하여 적에게 감청 기회를 거의 주지 않는 주파수 도약 기술 등은 과거보다 훨씬 신속하고 안전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게다가 모든 특수작전 참가자들이 소형 무전기로 서로를 연결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혁신은 바로 위성통신의 등장이다. 이것은 특수작전에 일대 혁명을 일으켰다. 세계 어디에 특수전 부대를 파견해도 사령부와 교신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팩스나 동영상, E-mail까지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군에서는 아예 중요 작전이 있을 때마다 사령부를 작전지역 주변에 설치할 필요가 없어 졌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특히 미국이나 영국처럼 전 세계단위의 작전을 수행하는 나라의 특수부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장비가 되었다.²⁴⁾ 그러나 미 국방부 부 장관 폴 윌포위치(Paul Wolfowitz)가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요청하는 기자 회견에서 한국의 특수부대는 능력 면에서는 최고이지만 최첨단통신장비 대신 종이와 연필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²⁵⁾고 말한바와 같이 한국의 특수부대도 우수한 통신장비

24) 월간 플레툰, 「세계의 특수부대 II」 (서울:멀티매니아 호비스트, 2002), pp.102~103.

25) 한국일보, 한국 전력증강 위해 국방비 늘려야, 2003. 6. 2. 17:18 기사속보

등을 구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이에 대한 훈련도 강화해 나아가야 하겠다.

4. 저장도 분쟁에 대비한 교육훈련 실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내 및 국제적 저장도 분쟁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고 독특한 상황적 조건에 따라 주된 군사적 대비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정규작전과 대비정규작전 위주로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제적 안보기여 활동도 극히 제한된 수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저장도 분쟁 해결과 관리를 위해 1987년부터 저장도 분쟁전략 공개논평을 시작, 지속적으로 교리와 부대구조 및 장비 등을 정비·개선중이며 특수작전 능력 강화 와 안전보장 원조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특수전 부대 역할에 대해서는 정규작전 지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저장도 분쟁에 대비한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 수행을 위해 약 4만 5천명의 육·해·공군과 예비소속의 특수전 부대를 통합 특수전 사령부 예하로 편성하고 각 부대별 지정된 임무수행 준비와 부대의 전략, 전술,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교리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저장도 분쟁에 대비한 즉, 전쟁이외의 군사작전에 관심과 교리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겠으며, 저장도 분쟁에 가장 적합한 특수전 부대 훈련이 개발되어야 하겠다.²⁶⁾

26) 인터넷, <http://www.dapis.go.kr/journal/200104/j107.html>

5. 전장에서 센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훈련

아프간 전에 참가한 특전 요원들은 전투현장에서 입수한 정보를 상공에 대기 중인 아군 전투기에 제공하여 공대지 공격을 유도해 목표를 정확히 파괴할 수 있었으며 또한 피해평가를 신속히 실시하여 사령부의 목표타격계획에 센서역할을 하였다

유사시 특수전 요원들의 중심 깊은 적 후방침투를 통해 정찰·감시 활동과 실시간 표적정보 제공은 공군의 공대지 항공폭격을 정확히 유도하여 폭격 정밀도와 공습효과를 배가할 수 있기 때문에 최신 정밀장비를 도입하여 거리, 방위각, 고도 등 각종 표적정보를 정확히 산출하여 공중폭격²⁷⁾을 유도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하겠으며 폭격기 등과 교신할 수 있는 무전기와 통신 및 보고체계의 훈련을 강화해 나아가야 하겠다.

이는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군사적 대응책과도 연계 된다. 유사시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이 극단적으로 핵을 사용할 징후가 포착된다면 여러 가지 선제공격 방법이 있겠으나 그중 한가지 대응책으로 고려 해 볼 수 있는 것이 특수전 부대의 투입이다.

비밀리에 적 지역으로 침투하여 목표물을 찾아 첩보보고를 하면 고고도에서 비행중인 폭격기의 폭탄이나 미사일에 의해 정확히 표적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과 같이 지하시설이 많은 나라는 아무리 첨단장비로 24시간 감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가서 보는 것 보다는 신뢰가 떨어질 것은 분명하다.

27) 국방일보, 한·미 연합 항공 폭격유도 훈련, 2003. 3. 29, 3면.

6. 도시 전투원으로서 역할 수행할 수 있는 훈련

미국과 이라크 전쟁 시 미군 전략가들은 시가지 전투에선 공격군이 수비군에 비해 3~5배의 병력을 가져야 승리를 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연합군은 시가지 전투 이전에 공화국수비대가 궤멸하는 시나리오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런 전술이 먹혀들지 않으면, 결국은 넓게 퍼진 바그다드의 대로와 주택가, 건물 지붕 하나하나를 장악해 가는 전투를 치러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하였다.

미 육군의 교리에는 시가지 전투는 불가피하거나 해당 지역이 고립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우회하라고 명시하고 있다.²⁸⁾ 그러나 사막을 버리고 도시에서 전투를 하기로 마음먹은 이라크 군에 대해서 연합군은 전투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이로 인해 특수부대의 특공작전이 전개되어 작전에서 승리하였다.

장차전은 가급적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지 전투를 회피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불가피 할 경우에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도 군사전문가들이 이라크 전을 분석하면서 이에 대처하려 들 것이다. 따라서 시가지 전을 대비하여 최첨단에 서서 도시 전투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수부대의 훈련을 발전시켜 이에 대비하여 특공부대원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SFAUC(Special Forces Advanced Urban Combat), 즉 특수부대용 시가전 훈련 도시를 실제로 똑같이 만들어 놓은 모조건물 등을 이용한 도시전투 훈련장을 만들어 도시지역에서 무기사용 목표확인, 건물 수색, 아군 구출, 적군 색출과 같은 훈련을 반복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²⁹⁾

28) 디지털 조선, 이라크 전쟁, 2003. 4. 4

29) CNN한글 News, 2003. 3. 5

7. 합동 및 연합 특수훈련 발전

미국은 과거에도 싸워 왔고, 현재에도 싸우고 있으며, 미래에도 싸워 이기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은 군사교리 및 훈련 면에서 어느 나라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에 특수전 수행 면에서도 가장 앞서 있다. 최근 걸프전, 아프칸전, 이라크전에서도 많은 특수부대를 이용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아프칸의 전쟁이 끝난 후 미 특수부대에서 전역하고 현 군사 이론가인 존 스카트 대령은 “특수작전이 군사 전역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최초이다.” 라고 평가했다.

이와 같이 미국은 특수부대 훈련과 발전을 위해 많은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매 년 2~4회 씩 실시하는 한·미 합동 및 연합훈련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여 간접 경험을 터득하여 우리화 된 특수전 체계를 발전 시켜야 하겠다.

제 5 절 특수전교육단 교육훈련체계 발전방향

우수한 특수전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수전교육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모든 것은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에 따라서 달라진다. 특수전 요원도 처음 어떻게 교육 훈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질적으로 우수한 특수전 요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특수전교육단의 교육훈련 내용 중 교육과정별, 교육단계별, 침투수단별 내용을 전체적으로 망라하여 문제점 위주로 발췌하여 그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특전 혼과 기질 함양

특전사령부 교육훈련의 목표는 적과 싸워 이기는 최정에 특수전 부대 육성에 있다. 이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 전투기술 면에서 강인한 특전인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분석해 보면 육체적으로나 전투기술면에서는 세계 어느 특수부대 보다 뒤떨어지지 않지만 정신적인 면에서 일반 병사들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특수전 요원 들은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고립무원 하에서 작전을 실시하기 때문에 강인한 정신을 소유하지 않으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하다. 현 '06년도 특수전사령부의 교육훈련지침이나 특수전교육단의 교육계획을 보면 정신적인 면에서 특전혼, 특전기질, 특전부대 정신을 강조하고 있으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하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힘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시대는 지났다. 이와 반대로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특수부대 정신교육은 전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훈련에 우선하여 강조하고 있다. 물론 강인한 체력단련이나 훈련, 그리고 지휘관 정신교육을 통해서 육성될 수 있지만 좀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교육시켜야 하겠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선 아래 <표 5-1> 와 같이 특전기질 함양요소를 선정하여 교육에 반영해야 한다.

외 적 요 소	• 체력, 지구력, 담력 • 자세 / 용모 / 언어 등 군인기본자세 확립
내 적 요 소	• 강한 훈련을 통한 자신감(할 수 있다, 하면 된다) • 특수전 부대원으로서 소속감, 자긍심 • 민주시민의식(기초질서, 희생정신, 솔선수범)
제도적 요 소	• 창의력, 임기응변의 상황조치 능력 구비한 교육훈련 • 우수자원 선발 및 관리, 확보 노력 경주 • 특전혼을 복돋을 수 있는 현장체험 교육

<표 5-1> 특전기질 함양요소

외적인 요소로 우선 야전과 연계된 강인한 체력단련을 통해 특수전 부대원으로서 외적 모습을 갖추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특수전부대 상 확립을 위하여 절도있고 패기있는 자세로 대국민 이미지를 제고해야 한다.

내적인요소로는 실전적이고 강인한 교육훈련을 통해 자신감을 부여해야한다. 대적관 확립을 위한 정신교육과 근성과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임무완수에 대한 신념과 목표의식을 고취시키며, 특수전 부대원으로서 소속감 및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 생존훈련 강화

특수전 요원은 적 후방 중심지역에서 제한된 탄약 및 장비와 보급품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고갈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존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의 특수전교육단의 생존 훈련의 실태를 살펴보면 다소 부족하며 실전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면 미국의 Robin Sage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생존 및 탈출, 저항 그리고 도피훈련(SERE:Survival Escape Resistance Evasion)과 영국 SAS 전투생존훈련(CST:Combat Survival Training) 같이 일정한 지역에서 적의 추격을 따돌리면서 오지에서 식량대용으로 토끼, 물고기 심지어는 쥐까지 잡아먹으면서 생존술을 익히며 대검과 성냥만 가지고 일정한 기간동안 가상적으로 위장한 심사관들의 집요한 추격을 따돌리면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³⁰⁾을 양성과정에서부터 부여하여 이를 몸에

배여 특수요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의 생존교육기간은 4장에서 언급되었으나 양성과정에서 24시간, 중급과정에서 20시간 교육하는 것이 전부이다. 교육기간에 배우는 내용은 동물(닭, 토끼)해체법과 채화법, 은닉소 구축 체험이 전부이다. 따라서 선진국 특수부대의 생존 교육체계를 벤치마킹하여 체계적인 생존 교육을 실시하고 별도의 생존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1년에 1개과정 정도로 하고 현재 각 과정별 소개교육식의 생존교육이 아닌 한 차원 높은 전술훈련과 연계된 하나의 과정이 생겨나야 하고 또 이러한 생존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 특수휘장을 수여하여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생존훈련 자체의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고 교육을 전술훈련과 연계하여 교육하거나 전술훈련과 같이 생존훈련 FTX를 실시하여 최대한 극한 상황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더욱 강인한 생존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교육개선이 요망된다. 생존 과정 속에서 부수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무성무기, 헬기레펠, 산악훈련, 독도법, 의무 등을 통합해서 전장상황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의 <표 5-2>에서 제시한 모델은 우리 실정에 맞게 2가지 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30) 김선한, 「작전명 트로이 목마」(서울:세시, 2001.1), p.260.

구 분	모델 #1	모델 #2
시 간	3주	6개월
교육 내용	· 생존(1주) · 도피, 저항, 탈출(4일) · 야외훈련 : 도피/생존(4일) · 포로수용소(4일)	· 생존(2주) · 전술훈련(1개월) · 일반학(2주) · 산악훈련(3주) · 해상훈련(4주) · 공수훈련(3주) · 독도법(2주) · 동계극복훈련(2주)
평가 제도	· 장교(80%), 부사관(70%)미만시 재평가 · 수준미달시 퇴교	· 퇴교시 특수전 부대 자격과정 박탈 · 수료과정 인정, 퇴교과정 재입교후 과정이수 가능
지원 자격	· 과정별 장교과정, 부사관과정 - 현행 특수전 교육단 실시과정별 교육실시	· 과정 구분 없이 특수전부대 복무자
특 징	· 전술훈련과 연계된 훈련진행 · 생존도구 제작활용 · 야외훈련 : 헬기침투, 대항군/군견추적 · 계절 및 날씨와 무관한 교육 · 포로수용소 교육	· 훈련지원 전담 부대 운용

〈표 5-2〉 생존훈련 모델 31)

결론적으로 특수전 부대에 있어서 생존이란 임무수행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써 생존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임무수행은 물론 어떠한 형태의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 또한 특수작전 요원이 적지에서 살아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적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당시 경험하였다. 단 두명의 적 특수부대 정찰조를 잡기위해 수많은 인원이 투입되었으며 또 국민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였던가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특수전 부대의 모든 훈련은 생존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런 훈련을 하는 목적이 생존하기 위함이고 또 생존하는 목적이 임무수행을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생존훈련을 통해서 각종 특수환경하에서 생존 할 수 있는,

31) 박원재, “세계 각 국의 생존훈련체계 및 적용연구, 2003, pp4~10

또는 생존하고자 하는 생존의지를 향상시키는 훈련이 되도록 생존교육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3. 과학화 훈련장 설치

훈련장은 전투력 극대화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국토면적의 제한, 국방예산의 부족, 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여건이 제한되고 있어 특수부대 훈련을 위한 훈련장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수부대 과학화 훈련장을 설치하여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³²⁾

특히 특수부대 과학화 훈련장은 모의 시설을 설치하여 정교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마일즈 장비 등을 이용한 전장실상을 체험하고 근접전투(CQT:Close Quarters Battle)훈련시설을 설치하여 도시전투 및 건물지역내의 전투에도 능숙한 요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보병대대급 및 기계화 대대급이 쌍방 훈련이 가능한 훈련장이 있으나 특수전 부대를 위한 훈련장은 전무하다. 따라서 이러한 과학화 훈련장을 특수전 교육단에 설치하여 각 과정별 교육 및 팀별 훈련이 일정한 주기로 실시한다면 전투기술의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교육체계 하에서 각 과정별 야외전술종합 훈련시에 마일즈 장비를 활용한다면 우선 연간 교육소요와 장비소요는 아래의 <표 5-3>, <표 5-4> 와 같다.

구 분	계	초급(특전)	중급(특전)	장교(특전)	특공수색초급	특공수색중급	특공수색장교
과 정	20	6	3	6	1	1	3
소요일수	73	4	5	4	2	2	2

<표 5-3> 연간 교육소요 현황

32) 인터넷, <http://www.army.go.kr/yo-1/study0.htm>

구 분	계	교육생	대항군	통제관	관리부대	소 요 군 거
K-1발사기	220	200	20			· 팀별 10, 대항군 20
K-2발사기	20	20				· 팀별 1
K-7발사기	20	20				· 팀별 1
통제관 권총	25			25		· 팀별 통제관 1, 대항군/총통제 5
크레모아	50	40	10			· 팀별 2, 대항군 10
영점조준기	2				2	· 영점사격 관리부대 2
개인용감지기	300	220	20			· 개인당 1set
중앙통제기	1				1	· 훈련 총통제

〈표 5-4〉 장비 소요현황(20개팀 기준)

4. 교육체계 개선

현재 특수전교육단의 교육체계는 부사관의 경우 양성과 초급 교육을 연계하여 24주 교육후 야전부대에 배출되며 3~4년후 장기자(중사)에 한해서 10주간의 보수교육을 하고 있으며, 다시 4~5년 경과후 상사진급자에 대해 4주간의 보수교육을 하고 있다. 총 교육기간은 38주이나 초급으로부터 고급과정 까지 과목은 거의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다. 또한 특수자격교육은 강하조장, 산악, 고공, 해척조 교육이 있으나 이는 대부분 침투를 위한 침투기술을 교육하는 것으로 장차전에 있어서 특수부대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도의 전술훈련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수교육을 전원이 이수하는 것은 아니며 장기자중 선발인원에 한하여 연간 100여명 정도 교육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장 1절에서 언급했듯이 특수전 사령부가 합동 특수전 사령부로 변화해야 하는 것과 같이 특수전교육단도 그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교육체계와 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우선 양성교육 과정을 현재의 연 5개에서 연 1개 또는 2개로 축소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내용은 최초 제식 등 기본훈련을 실시하고 유격과 각종 전투기술을 교육하고 이후 공수교육, 강하조장, 해척조, 고공교육, 생존교육까지 이수한후 개인 주특기별로 주특기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그후 장교들과 팀을 이루어 팀전술 훈련 및 종합전술훈련을 실시토록 하는 것이다. 장교의 경우는 초군반 및 고군반 이수자가 대부분의 전입 자원 이므로 특수전 부대에 필요한 기본적인 전투기술과 침투기술훈련(공수, 강하조장, 고공, 해척조)과 생존훈련을 실시하고 이후 부대지휘 절차 및 전장정보분석, 비정규전, 심리전 등의 전술교육후에 부사관 양성과정 인원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격리지역활동부터 야외종합전술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구 분	양성과정 모델(00주)	
	기간	교 육 내 용
초기과정	0주	· 제식, 총검술, 개인화기, 화생방, 체력단련, 행군
기본과정	0주	· 유격, 산악행군, 레펠, 특공무술
침투자격 획 득	0주	· 공수기본
	0주	· 강하조장
	0주	· 고공침투
	0주	· 해상침투
전문과정	0주	· 생 존
	00주	· 주특기
	0주	· 전 술
	0주	· 야외전술종합훈련

〈표 5-5〉 양성과정 모델

부대구조는 이러한 교육을 가능토록 하기위해서 특수교육처와 공수교육처, 전술학처, 학생연대를 통합하여 학급(CLASS)별로 교관을 통합 운용하는 것이다. 즉 한개의 과정이 입교하면 기초군사훈련부터 전술훈련까지 교관단 및 훈육 / 지원단이 편성되어 교육수료시까지 교육

및 지도하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장점으로서는 각종 보수 및 자격과정 교육소요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한 과정에 교관들이 집중하게 됨으로서 교육의 질이 향상되게 된다. 단점은 최초 시행 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특전사 병력유지상 연간 5개기가 배출되어 특전사의 적정인원을 유지하던 체계가 적게는 1년에서 2년까지 인원배출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5. 우수자원 해외 특수교육 이수 활성화

세계 각 국가에서는 이라크전에서 효용도를 높인 특수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향상을 포함하여 재정비를 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러한 점에서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더욱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 특수전교육단에서도 교리 발전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혁신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물론 우리 자체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지만 선진국의 특수부대 혁신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배워 우리 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98년 IMF이후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해외교류 활동이 저조한 형편이며 '06년 미 특수전학교, 미 보병학교, 75유격연대 견학 등 소요를 제기하였으나 사업 우선순위에서 하위권으로 분류되어 미반영 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국 특수전 요원 중 우수자원을 선발하려 해외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이수한 후 특수전교육단 교관 요원 등으로 활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6. 비정규전 수행능력 향상

장차전은 3장에서 언급했듯이 정보전자전, 장거리 정밀교전, 다차원 동시 통합전, 비접적·비살상전, 비대칭전의 양상을 보일 것이다.

또한 이라크전에서 미특수전부대는 이러한 전쟁양상을 이미 보여 주었다. 또한 아프카니스탄전은 정규전 부대가 투입되지 않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가장 성공적인 특수전 부대의 성공사례중 하나이다.

아프카니스탄에서 미국이 정규군의 도움 없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특수전 부대의 비정규전 덕분이다.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하여 미 특수전 부대는 아프카니스탄 북부동맹군 지역에 침투하여 북부동맹군과 함께 비정규전을 수행하며 각종 군사시설의 파괴 및 교란작전으로 탈레반 정권이 조직적인 저항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북한은 과거 소련 중공과 함께 가장 폐쇄적인 집단이었다. 물론 지금도 폐쇄적이긴 하나 1980년대와 같은 양상은 아니다. 중국과 국경지역에서는 하루에도 수천명의 밀입국 인원이 드나들고 있으며 북한내에서도 김정일 정권에 반기를 드는 저항세력이 차츰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특수전 부대가 북한 지역에 침투하여 비정규전을 수행하기 좋은 여건으로 작용한다. '06년 연합사령관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특수전부대의 비정규전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특수전 사령부에서도 비정규전 수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나 막상 지금 전쟁이 발발 한다면 미국이 아프카니스탄에서 수행한 것과 같은 수준의 비정규전을 수행하기는 제한된다. 이유는 교육과정에서 체계적인 비정규전 교육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1980년대 까지만 해도 특수전

의 기본 전술은 비정규전이었으나 북한의 폐쇄적인 상황과 주민의 주체사상으로 특수전 부대가 비정규전을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특수전 부대에 의한 직접타격과 정찰감시를 주 임무로 하였으며 교육 또한 이에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변화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시기이다. 즉 특수전교육단에서부터 비정규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적지에 침투하여 적 저항세력을 규합하고 반란과 태업, 그리고 고도의 심리전을 이용하여 적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교육을 해야 한다.

제 6 장

결 론

현재 세계의 강국들은 특수전 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엄청난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 강대국일수록 더욱 큰 규모의 특수전 부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장차전양상이 전략무기나 모든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전면전보다는 국지적인 분쟁의 해결이나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형태의 전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전쟁의 양상이 변하고 마약, 테러 등 고강도 범죄가 인류의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고도로 전문화 되고 폭넓은 상황해결 능력을 갖춘 특수전 부대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앞을 다투어 특수전 부대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적 차원에서 특수전 부대의 필요성과 활약상을 적극 홍보하여 가상적에 대한 심리적 제압효과까지 노리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은밀하며, 가장 확실하고, 가장 경제적인 전략적 가치를 가진 것이 특수전 전력이라 할 수 있다. 걸프전으로부터 21세기 첫 전쟁이었던 이라크전을 고찰해 볼 때, 현대전에서 특수전 부대의 역할은 더욱 결정적이면서 그 범위가 확대되어가고 있다. 또한 북한 핵 실험 문제를 비롯한 우리의 안보환경은 그 어느때 보다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주변국가들 역시 냉엄한 적자생존의 국제 질서속에서 자국의 실리와 생존을 위한 군사력 첨단화를 가속화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안보상황 및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는 우리 특수전 부대로 하여금 보다 냉철한 인식과 새로운 개념의 군사대비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역사가 말해 주듯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자는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자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특수전 사령부에서는 싸워 이기는 정예 특수전

부대 및 요원 육성³³⁾을 목표로 특수전교육단과 각 부대에서 강인한 훈련을 실시, 양성 및 숙달되고 있지만, 미국의 특수부대의 훈련과 최근 및 장차전 양상을 분석하여 좀더 나은 교육 훈련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특수전 학교와 한국의 특수전교육단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훈련 내용 면에서는 각국의 작전환경에 부합되게 거의 유사한 내용을 선정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이중 특히, 미국은 거의 전 세계를 상대로 각종 형태의 사태에 대비해야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폭넓게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최근 및 장차전 양상을 분석해 볼 때 최근 전쟁인 아프칸전에서 특수전 부대는 비록 소규모로 전개되었지만 특수작전이 군사전역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최초 작전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미 특수전 사령관이 2002년 3월 12일 미 의회에서 증언한 바에 의하면

- 병사가 장비보다 중요하며
- 질이 양보다 중요하고
- 특수전력은 단기간에 대량으로 양성되지 않으며
- 유능한 특수전 전력은 상황발생 이전에 양성되어 있어야 한다며

특수전 부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라크전에서도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적시적소에 항공공격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타격순간까지 표적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요 표적에 대한 정밀공격을 가능케 하는 등 특수전 전력의 유용성·효과성을 입증하였다.

결국 전쟁은 인간이 이기는 것이지 기계가 이겨주는 것이 아니며 산

33) 특수전 사령부, 「'06년도 교육훈련지침」, 2005, p.7.

더미만큼의 위성사진 보다는 한 명의 특수전 요원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세계 각국의 군사전문가들이 분석한 장차전 양상을 요약해 보면 다차원 첨단기술전쟁과 정보전쟁이 될 것이며, 화력체계의 혁신적 개발로 무기의 고성능화, 소량화, 경량화를 기하고 있으며 전·후방 구분이 없는 비선형, 분산형, 비 접적전투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평시에 막론하고 각종 형태의 저항도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 및 장차전 양상에 따른 장차 특수전 부대 역할을 판단해 볼 때

① 적지 중심지역에서 디지털 전사로서의 역할과

② 정보작전 수행의 센서로서의 역할

③ 비정규전 수행의 최선봉장

④ 전쟁이외의 군사활동 수행의 주된 역할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수전 요원은 전쟁시, 분쟁시, 평화시, 언제라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수전 부대 요원 선발로부터 양성 및 숙달에 이르기까지 강인하고 전문적인 교육이 특수전 부대와 특수전교육단의 발전적인 교육훈련이 요구된다.

먼저 특수전 부대 교육훈련 발전방향으로는 장교 및 부사관의 우수인력 획득 방안이 요구되며, 지속적인 교리발전과 무기체계 발전에 따른 훈련강화와 저항도 분쟁에 대비한 교리발전 및 훈련과 전장에서 센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훈련과 도시전투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훈련이 발전되어야 하고, 합동 및 연합 특수훈련을 발전시켜야 하겠다.

다음 특수전교육단의 교육훈련체계의 발전방향으로는 특전훈과 기질

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악조건 하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생존훈련을 강화시키며, 과학화 훈련장을 설치하여 매 과정별, 팀별 훈련을 강화하며, 현재의 과정별 보수교육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최초 교육 입교시부터 모든 교육을 이수후 배출되도록 교육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비정규전 교육을 강화하여 작전팀의 비정규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특전사의 우수자원을 해외 특수전 학교에 입교하여 이수케 함으로써 특수전 수행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했을 수 있도록 하여 장차전에 대비한 우수한 특수전 요원을 양성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가. 단행본

- 국방대학원, 「안보관련용어집」, 1981
- 김선한, 「작전명 트로이 목마」, 2001
- , 「세계의 특수부대 비밀전사들」, 2000
- 육군본부, 「육군 군사술어사전」, 1977
- 특수전교육단, 「06년도 교육계획」, 2005
- 특전사, 「21세기 전략환경변화의 특수전부대의 역할」, 2002
- , 「미래특전부대 종합발전계획」, 2003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미래전 양상연구」, 2004
- 합동참모본부, 「합동특수전」, 1995

나. 논문 및 기타 간행물

- 국방대학교, "장차전에 대비한 합동특수작전 발전방향", 2000
- , "미래전 대비 특전부대 역할 제고를 위한 발전방향", 2004
- 국방참모대, "비정규전 운용발전에 관한 연구", 1999
- 군사평론, "현대전에 있어서의 특수전의 기여", 1977
- 김경두, "미래전 대비 특전부대 역할제고를 위한 발전방향", 2004
- 김선호, "북한의 핵실험과 한국의 대비책", 성우회, 2006
- 디지털 조선, 이라크 전쟁. 2003. 4. 4
- 박환재, "특전부대 모병업무 발전방향", 교육사, 2002

박환재, "세계 각 국의 생존훈련체계 및 적용연구", 2003

박병환, "세계 각국의 공수부대 및 교육체계와 적용방안 연구", 2000

배연해, "강대국은 특수부대 양성중", 2001

월간 플래툰 「세계의 특수부대 II」, 2002

유준성, "현대전에 있어서의 특수전의 기여", 1977

육군대학, 「군사평론 제347호 특수전부대 운용」, 2000

한국일보. "한국전력 증강위해 국방비 늘려야". 2003. 6. 2

합동참고교범 10-2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 사전」, 1998

합동교범 3-5(초안) 「합동특수작전」. 2002

2. 외국문헌

미 교범, JP 3-05, 「Doctrine for Joint Special Operation」, 1998

3. 인터넷

[http://www. specialforces. net/](http://www.specialforces.net/)

<http://www. special operation.com/>

<http://www. specwarnet.com/>

<http://www. airpower.maxwell.af.mil/>

<http://www. training.sfahq.com/>

[http://www. army,go.kr/](http://www. army.go.kr/)

<http://www. blackberet.net/>

<http://noworld.pe.kr/speciality-russia.htm>

<http://www.dapis.go.kr/>

<http://www. chosun.com/w2ldata/html/news/>

ABSTRACT

Research of Training system & function of the SWF considering the future war aspect (SWTG as a main concern)

Lim, Jong Hyun

Major in Division of National Defence Management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Nowadays, most of the countries in the world have Special Operation forces and the size of special force is meant to be bigger as the country has strong strength in military.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future warfare phase will be either to protect a profit of ones own country or to solve a local area quarrel rather than an all-out attack using conventional weapons or strategic weapons.

The importance of Special force that is highly specialized and extensively ready for solving situation- grows as the aspect of war changes as well as the safety of mankind is no longer secure from drug, terror and such like vital crimes.

Therefore, various countries compete in building up the potential of special force while they aim to have psychological controlling effect of an imaginary enemy by advertising the necessity and the

activity of the special force.

In the Gulf War, United States' Special Force carried out a special separate operation while they recognize the situation of its enemy using GPS receiver and image receiving equipment. This operation, which collected and reported the information of the war field before the war began by invading Iraq through land and air, contributed greatly to the command center of Multilateral Force in establishing operation plan and making precise information judgment. Also the operation made a precise guidance of Aircraft firepower in air strike by acquiring main target, for example, Squad Missile. Above all, the operation rendered great services in place of absences of manmade satellites and reconnaissance flight in abnormal weather.

Moreover, over nine thousands men of special force were required in the last Iraq war—that is three times more of the number of the special force required in the Gulf War— and this proves the necessity of the special force thus its size naturally gets larger.

Future plan of Special Forces operational Detachment that can effectively deal the change in war circumstances of the 21st century is compulsory.

In this aspect, this thesis aims to draw up a plan military training system accompanying the duty of Republic of Korea Special force based on an outlook of future war and external threat that changes in sense of times.

This thesis referred to bibliographies and treatises published by several research institutions of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Also

it has used a technical method of study in which several theses and contents of seminars were analyzed.

Fiscal Year is simultaneously considered the latent threat of the future and North Korea and classified into 5 sections of military unit structure, organization, doctrine, and weapon system, formulation of development of Special Warfare unit and Special Warfare Training Group Training System by considering the war-development element.

However, the principal object of the research still based on the operating notion of the future Special Warfare unit and connecting future planning document system within the senior unit. Especially, this thesis focused on developing training system of the SWTG.

Looking at the matter of R.O.K.S.F, there are restrictions in carrying out missions according to each mission type due to the fact that all the units under the name of Special Force have similar unit structure and the development of military operations both in time of peace and in time of war and the military training are restricted as special Force of each army, navy and air force are under separate command system in time of peace and Combined Unconventional Warfare Task Force is only established in time of war.

Also, the principle of fundamental theory of union and concerted operations still leaves much to be desired. Most of the structure of the war capacity is a traditional type thus triteness is concerned even though it is partially being reinforced.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reform the Special force Unit in contradiction to ground troops supporting function, Special duty

function, Special fatal function and T.G.O. function that are expected in our future.

Also, C4IC system has to be developed by operating the special force, which is decentralized into each army, navy and air force, together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 of combat power and the matter of establishing 'Joint Special Operations Task Force', should be considered as a long-term matter.

In the dogma respect, Special Operations for achieving missions and parts in the expected foresight war, development of special operation dogma of counter plan for demilitarized threat, of Local Provocation Counter Operations and of Multinational Operations& Korean Special Operations have to be carried out.

In the weapon system respect, the command control and communication system have to promote constructing entire military network as well as supplying 'Link up multi function Satellites' and 'Air to Ground Communication Radio set' to every echelon while the information system introduces special operation- situation controller in order to construct automotive handling system, to collect combat information and to spread real time information. Also maneuver system has to secure aircrafts and ships by which individual infiltration can be guaranteed.

Training has to be developed so that joint special operations, ROK/US joint and combined special operation can be performed in success. We have to scrupulously prepare concerted/joint operations that are enforced 2~4 times a year under the KOR/US joint defense system. Thus we can acquire indirect experiences and develop the special warfare system by conversing it into our own.

Especially, in order to cultivate special warfare personnel of talent, the role of SWTG is extremely important. Any and every thing undergoesa great change by how it began at the first place. Likewise special warfare personnel could become talented personnel according to how they were trained in the first place. Hence the directions of SWTG to success development may be as follow;

First of all, special warfare personnel has to cultivate A-Team Spirit and mind so that they can always achieve missions no matter how hard the missions would be. Since A-team carries out tasks by infiltrating into enemy's zone, it is hard to execute missions successfully when lack of tenacious mind.

Secondly, Survival train has to be strengthened. As A-Team performs tasks in deep operation area, they lack of ammunition, equipment and supplies after some period. Therefore, in order to subjugate this matter it is essential to have enriched survival train.

Specialized instructor for systematic train and extended period of train for each course have to be guaranteed. The current training period of each course only allows so little of time to achieve the abilities of nighttime task operation. It is therefore hard to execute missions, requiring skilled abilities, with a foundation level train.

Thirdly, a cycle of repeated training has to be constituted by establishing a combat training center. Even though training grounds are indispensable requisitesin maximizing combat power, there are too many hurdles to overcome in building up training grounds for A-team train. This is because either a superficial measure of land, a defense budget or a change of society environment is restricted. Therefore to solve the above matter, A-team combat training center

has to be built and train should be carried out hereby.

Fourth, training programs according to the phase of future war has to be researched and educated on a right period. Our current training program stays at a low level of analyzing achievements yearly and either adding or deleting subjects. This program leads to a situation whereby the research of training program cannot keep up-to-date to future force structure change and future war aspect.

Fifth, men of talent have to be given opportunities to take over-sea A-team train. Although, at SWTG, a lot of efforts are put into effect to develop doctrine, there is need of participating A-team progress of other advanced states and making what we have learnt to our own. Therefore, selecting talented special force men and granting them a chance of completing education of abroad A-team train will enhance training programs if they were used as instructors of SWTG.

Lastly, unconventional warfare force train has to be intensified. At the present time, several countries put Unconventional Warfare Forces in practice accordingly to the real situation of the countries and the purpose of war in order to solve the matter under a special situation whereby conventional warfare is hard to be operated. The unconventional Warfare Forces of A-team was the motive of US army ending the Afghanistan war in victory without any help from RA (regular army)

In conclusion, considering the future war aspect, A-team carries out special train by means of illegal in comparison with Conventional Warfare Operation. Varieties of operations have to be carried out as infiltrating into deep enemy area by equippedspecial

command and achieving operational& strategic mission by decentralizing the power into a small scale. Thus, combat power and strategy; retentive physical strength and mental strength that correspond to the line of duty have to be educated systemically.